



월간 증현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현교회

'77 11월호



바로 감사하려면

(성경 / 시편 50 : 23)

김 창 인 목사(당회장)

1.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할 이유

첫째, 하나님의 선택해 주신 사랑에 대하여 감사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택함받은 것은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택함받은 일이 누구에 의해 되었느냐에 따라 택함받은 자의 기쁨과 영광이 다릅니다. 세계인구 40억 중에 여러분과 저를 택해 주신 분은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 은혜를 무엇으로 갚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은총 그 사랑을 감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둘째, 계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금년에도 우리나라가 발전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이 우리보다 잘 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가 북한 공산주의와 대결하는 데에 소모하는 힘을 평화산업에 돌렸다면 지금쯤은 우리가 더 앞섰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교회가 계속해서 성장·발전하는 복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해외선교면에서 말할 때 우리교회가 인도네시아에 선교관 하나 짓는 복을 받았습니 다. 우리나라에 선교가 들어오고 90여년 되는 동안 많은 선교사들을 보냈지만 현지선교를 위해 선교관을 지은 일은 한국교회역사에서 처음입니다. 커다란 건물은 아니라도 충현교회가 처음으로 했다는 것, 우리교회에 주신 선물로 알고 감사합니다. 흥룡한인교회가 부흥되는 소식이 오고, 미국에 뉴욕충현교회가 세워지며, 샌프란시스코와 캐나다에 자매교회가 생기고, 서독과 이집트(애굽)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등 우리교회가 세계를 향해 팔을 펼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 다. 또한 국내에서도 복음전파하는 여러 기관에 불심양면으로 지원하고 여러 곳에 예배당을 지었습니 다. 감사합니다.

세째로 금년에도 풍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 계속 곡식이 잘되게 하는 중 금년에 더 큰 풍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영의 것, 육의 것을 계속해서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2. 어떤 신자가 감사를 바로합니까?

첫째, 겸손한 신자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범한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구나!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겸손한 사람이 감사를 드리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연약함을 절실히 깨닫는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의 불려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둘째, 지혜로운 신자입니다. 세상은 험하다, 악마는 사납다, 책임은 중하다는 것을 바로 알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이 불붙습니다. 미련한 사람은 감사가 없습니다.

3. 감사를 바로하면 그 인격과 생활이 어떻게 자랍니까?

첫째, 질서있는 생활을 합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아들딸은 말과 행동에 순서있게 처신합니다. 선생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제자는 배운 것을 지키면서 질서있게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신자는 한부로 덤비지 않고 말과 행동에 질서있는 생활을 합니다.

둘째로 충성의 생활을 합니다. 임금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신자가 충성을 다하듯이, 부모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자식이 부모님에게 충성의 효도를 하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신자는 믿음의 절개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런 신자가 됩니다.

세째로 헌신의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신자는 마음에 감사가 불붙고, 입에서 찬미가 흘러나오며, 행동에 조심하고, 몸과 시간과 물질을 아낌없이 바칩니다.

네째로 마음이 바다같이 넓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신자는 좁스름지 않고 관대한 큰 그릇이 됩니다. 그러나 불평하고 원망만 하는 사람은 마음이 좁아지고 썩썩한 사람이 됩니다.

4. 감사하는 사람의 복

첫째, 마음에 평안이 넘칩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은 꽃밭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웃음의 꽃 기쁨의 용기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가 있습니다.

둘째, 천국건설의 실력이 생깁니다. 먼저 자기 마음에 천국이 이뤄지고 가정을 천국으로 만듭니다. 직장을 교회로 천국으로 만듭니다. 이처럼 천국의 건설차가 됩니다.

세째, 영원한 천국의 영화를 누립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숨쉬다가 세상을 떠나는 날 영원한 천국의 영화를 누리게 됩니다. 반대로 원망하는 사람은 마음에 지옥불을 품고 살다가 영원한 지옥의 죄수로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마음에 감사합니다. 마음에 감사의 불이 붙으면 입으로 찬송이 나오고, 마음에 감사의 꽃이 피면 행동의 열매가 선하게 맺어집니다. 감사 속에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복을 받고, 그리하여 감사하는 사람만 영접하는 천국에 가서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1월의 행사

- 1/10월 정기당회
- 5/작은 음악의 밤(중등부)
- 6/제직회
- 11/교회 철야기도회
- 12/독서특강(중현도서관)
- 13/남전도회 월례회 · 권사회 월례회
- 14/신혼부부교육(성경학원)
- 20/추수감사절 · 여전도회 월례회 · 산업전도회 월례회 · 특강(고등부 · 청년부 · 노년부)
- 21/교육위원회
- 26/성경발표회(중등부 · 고등부)
- 27/구역권찰회 · 전도위원회

11월호 차례

<말씀> 바로 감사하려면 / 김창인 목사.....	2
<편집실에서>	4
<이렇게 답한다> 장례와 추모예배에 대하여 / 정관일 목사.....	5
특집 I / 주교교육 발전을 위한 기획연재 학부모 초청 좌담회 / 신영대 · 박승준 · 백옥인 · 김석운 집사.....	6
특집 II / 해외선교를 위한 논단 한국교회와 세계선교 / 김영한 박사.....	10
<직분론(7)> 권찰의 직무와 자격 / 정상우 목사.....	18
<이단종교비판(10)> 이단종파의 포교활동 / 윤형철 전도사.....	19
<예배자료> 시편에서 듣는 주간의 만나.....	20
<해외성도의 편지> 이영자.....	15
<교사 수필 릴레이(5)> 예수 물었다면 / 김정자.....	15
<도서정보>.....	16
<책소개> 사랑의 원자탄 / 조선근 장로.....	16
<1200자 칼럼>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 / 이형수 집사.....	17
<찬송가 해설(21)> 저 밭에 농부 나가.....	17
<구역장 노우트(22)> 신앙지도지침(14) / 백성룡 목사.....	21
<구역소식>.....	21
<교회 뉴스>	22
<해외선교 소식>	24
<청년 신앙수필> 또 한번 「이벤」 / 고제원.....	24
<이달에 만난 사람(5)> 신계택 장로.....	25
<표지설명 · 기사적>.....	26
<사진으로 보는 이모저모>.....	27
<실로암 못가에서> 큰 감사	28

우리의 신조

우리는 보수적 개혁주의에 입각하여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과 대소요리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삼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표를 둔다.

1. 말씀을 파수하는 교회가 된다.
2. 천국 일꾼을 키우는 교회가 된다.
3.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대로 민족의 복음화와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한 안디옥교회가 된다.

월간 중현

김 창 인 목사 라디오 방송 설교 안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음파를 타고 가는 복음—

이 복음의 외침을
가족과 이웃과 함께
들으며 은혜 받으십시오

아세아방송(1570kHz)
매주 월요일 오후 8시 45분부터
매주일 저녁 7시 15분부터

삼백육십오일이 모두 감사한 날들이었습니다

■ 십일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특별히 추수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 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먹고, 입고, 쓸 것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를 드리며 특별히 풍년이라서 감사를 드린다고 하면 그건 반쪽짜리 감사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깊이 생각해 보면 일년 열두달, 일년 삼백육십오일이 모두 감사한 날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어떻게 때문에 나는 감사드릴까」는 조건이 달린 감사보다는 「감사하는 가운데 나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또 다시 감사하는…」 터전이 맑고, 깨끗하며, 순수한 마음에서 우리나는 진정한 감사가 귀하다고 봅니다. 더우기 온전한 감사는 육신의 양식을 주시어 우리 육신의 생명을 허락하실같이 영의 양식을 주시어 우리 영혼이 메마르지 않고 험악하기 그지없고, 고달프기 한이 없는 이 세상에서 주 안에서 항상 소망을 품고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은혜를 항상 잊지 않는 것이라고 봅니다.

■ 주일학교 발전을 위한 기획연재로 지난 2월부터 실어온 글의 계속으로 이번호에는 「주일학교 학부모초청좌담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주일학교지도교역자초청좌담회」「주일학교교사초청좌담회」에 이어지는 이번 「주일학교학부모초청좌담회」를 통해 주일학교 지도교역자나 교사 못지 않게 학부모들은 아니 어떤 면에서는 그 이상으로 신경을 쓰고 있으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이 어른으로 자라갈수록 믿음직스럽고 자랑스럽다기보다는 도리어 겁이 난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답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까지는 감히 바라지도 못하고 그저 교회만이라도 출석을 잘해 주었으면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될 때는 안타깝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주일학교 교육에 모든 기대를 걸 수밖에 없다는 말은 흡사 애원어린 호소처럼 들리기도 하였습니다.

■ 우리교회는 현재 3명의 평신도선교사를 포함하여 모두 7명의 선교사를 해외에 파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더 많은 나라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이와 같은 요청에 속히 응해줄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 안타깝고 주님께 대하여 죄송스럽기 그지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관심이 없어서도 아니요, 물질이 부족해서도 아니요, 사람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선교의 소명을 받은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효율적으로 내어놓을 수 없는 것은 아직도 우리는 세계선교사업에 익숙하지 못하고 여러가지 면에서 서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에 선교사를 보내는 것이 가장 좋을지, 어떤 사람을 뽑아서 어떻게 훈련을 시켜야 할지, 모든 성도들의 선교에 대한 관심을 하나로 묶어 큰 힘을 내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또 선교자료를 수집하는 데도 어떤 사람과 어떤 장소가 필요한지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우리는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있음을 분명히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이번 호에 특별히 김영한 박사에게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글을 부탁하였습니다. 써주신 글 「한국교회와 세계선교」는 왜 우리가 세계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안되는가 하는 그 이유를 아직까지도 분명하게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준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좀 더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하여는 김 박사의 「한국교회와 세계선교」의 측면에서 기대합니다.

■ 이번 달에는 교회 뉴스에 여러분의 관심이 한층 더 쏠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난 10월 30일에 있었던 장로투표에서 피택된 6명에 대한 소개도 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지난 11월 15일 임시당회에서 발표된 새해 각기관 기관장 및 주일학교 각부 부장에 대한 소식이 실려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해나 그러했듯이 연말이 되면 새해에는 어떤 사람이 어느 기관의 책임을 맡게 될 것인가 하는 호기심에서부터 새해의 일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이같은 인사이동에 대한 관심에 비하여 새해는 올해보다 얼마나 더 낫은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그 관심도가 반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일을 하기 위하여 조직을 하였고, 일을 하기 위하여 사람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일보다도 조직에 더 관심을 보인다는 것은 무엇인가 순서가 뒤바뀐 듯한 느낌이 없지 않습니다.

■ 「이 달에 만난사람」에 대하여 대부분 좋게 보아 주시는 것 같아 조금은 안심이 됩니다. 몇몇 특징인에 대하여 소개하는 인상을 주지 않을까 하여 이 난을 시작하기 전에 상당히 망설였습니다. 사람에게서는 장단점이 있기 마련인데 누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될 수 있는 좋은 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 좋은 점을 소개하므로 소개되는 사람과 소개를 받는 여러 사람 피차에 덕이 되게 하려는 것이 우리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특정한 사람만이 소개되는 것이 아니며 누구나 소개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바로 소개할 사람이 있으므로 여러분이 언제나 추천할 수 있도록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상례와 추모예배에 대하여

정 관 일 목사

<부목사·대학부지도>

물음/신자는 교회라는 공동체에 속한 일원으로서 교회의 관례적인 규례나 모든 법도에 준해서 살아야 한다는데, 예식 중 「상례」에 대하여 좀 알고 싶습니다.

흔히 사람이 운명할 때가 되면 당황한 나머지 곁성을 내며 절제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가정이라면 가족이 둘러앉아 찬송을 부르며 신앙을 격려해 주어야 됩니다. 어느 예식에서든지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하는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는 일이라 하지만 상례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여야 합니다. 또 우리교회에서는 일체의 상복을 폐지하고 완장과 리본으로 표시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례의 절차·진행에 대하여는 교회측과 충분한 의논이 되어야 하며, 처음부터 불신자는 개입시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장례식은 크게 입관식·발인식·하관식의 순서로 진행되는데, 특히 발인식의 절차는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가지 순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고인의 약력소개가 호상족 인사는 누구나 할 수 있겠으나 조사·조가는 주례자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사와 조가가 기독교예식에 합당한 내용인가를 주례자가 먼저 살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분향과 배례는 금지되어야 하며 손님에게 술을 대접하는 일은 꼭 삼가야 됩니다. 운명 후 장례가 끝날 때까지 예배는 하루에 한번 이상 혹은 아침 저녁으로 드려야 하며, 장례식날 하관식을 마치고 다시 상가에 돌아와서 유가족들을 위한 위로예배를 드림으로써 상례의 모든 행사는 끝납니다.

물음/예수를 믿는 사람은 조상에 대한 제사나 제례를 금하라고 하는데, 신자가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또 어떤 태도를 취해야만 합니까? 그리고 성도들의 가정에서 드리는 「추모식」 혹은 「추모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게 가장 바람직한 것인지 이에 대하여도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자들이 죽은 사람을 추모하면서 하루를 보낸다는 일은 그저 무의미하다고는 할 수 없

을 것입니다. 부모님이 세상을 떠났을 때에 신령한 면에서 잘 믿다가 가셨다면 그대도 감사할 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육정으로 생각할 때에 슬픈 일이 아닐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친구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선 일에 대하여는 보다 깊은 뜻이 있었겠지만 아픔은 나사로에 대한 사랑의 정이 전혀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정 관 일 목사>

죽은 자에 대한 슬픔이 세월이 지나면 서서히 잊게 마련이라고 해도, 얼마 동안은 부모님 돌아가신 날이 되면 부모님이 추억되는 것은 이 역시 인간의 상정이라 하겠읍니다. 여기에서 추모예배는 시작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을 모아 둘러앉아 돌아가신 분의 선한 것들(부덕한 것은 드러내지 않음)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고인의 교훈과 덕을 새기며 무엇인가 선한 뜻을 이루려 했다면 그 뜻을 받들자고 하는 것쯤은 있을 법한 일이기도 합니다. 이런 일은 신앙적이기보다는 윤리적인 문제로서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부모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쳐 주는 데에도 꽤 유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추모예배가 옛날 조상숭배의 습관을 버리지 못해서 제사를 대신하는 것과 같은 생각으로 드리게 된다면 크게 잘못된 일입니다. 제사를 대신하는 것 같은 행위는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의 죄가 되므로 신앙상 백해무익하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추모식도 예배라는 점에서 어디까지나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다짐하면서 교훈을 받는 일이 중요합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혹 추모예배를 드리더라도 오래도록 시행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점차 기억에서 사라지게 된다면 고인을 세심스럽게 회상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뜻에서 부모님을 그리시는 추모예배라도 2년 정도면 좋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가정은 실천교육의 도장

- ◇...이번에는 학부모를 초청하여 좌담회를 가져 주일학교 교육의 관계를...
- ◇...알아보고, 그 부족한 점의 원인을 살펴보고 앞으로 우리교회 교육의...
- ◇...계획이나 실행에 다소 도움이 되기를 원하며 좌담회를 마련하였다. ...
- ◇...가정의 모든 바램을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을지 현재 상황에서 다소...
- ◇...우리가 있겠지만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요구되어진 사항들은 계속 연...
- ◇...구·발전시켜 참다운 교회교육의 굳건한 초석을 이루게 될 것을 의심...
- ◇...치 않는다. <편집부>...

때/1977년 10월 24일

곳/청년부실(동관)

참석자/아버지:신영대 집사

아버지:박승준 집사

어머니:배옥인 집사

어머니:김석윤 집사

사 회/이형수 집사(월간충현 간사)

사회자: 바쁘신데 이처럼 귀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월간충현이 금년들어 주일학교 교육에 관한 문제를 다루며 계속 이 문제를 취급해 온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 지난번까지 주일학교 각부 지도교육자님들·피교육자(학생)들·교사님들을 별도로 초청하여 교회교육에 관한 그들의 의견과 상황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 중의 많은 부분에 가정으로 문제가 옮겨져 가정에서의 입장을 들으며 주일학교 교육의 또 다른 한면을 보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마침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이 모두 학부모이면서 전직 혹은 현직 주일학교 교사들이므로 훨씬 이해가 쉬우리라고 생각합니다.

주교교육과 가정신앙교육과의 관계

먼저 여기 참석하신 분들의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의 현황 또 지금까지 주일학교를 거치면서 형성된 지금의 상태 등을 말씀해 주십시오.

박승준: 저희 집은 학생이 넷인데, 초등부·유년부·유치부에 있습니다. 막내가 영아부 제1회 졸업생이지요. 그동안의 유치부에서 유년부, 유년부에서 초등부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살펴보면 재미있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요, 가정은 주일학교의 하나의 축소된 것으로 보고 싶어요. 그렇지만 주일학교에서처럼 교사나 교역자가 일일이 가르쳐 주지 않는 점이 다르지요. 그렇기에 부모들이 먼저 반성해야 할 점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가정은 생활 속에서 실천을 통하여 봄으로써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에서는 이를 위해 먼저 언어의 순화부터 하자고 부모가 합의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녀들 앞에서는 부부간 말다툼한 일이 생겨도 참고 피하며, 자녀들에게 여러가지 이야기거리들

만들어 서로 이야기를 시키곤 합니다.

또한 주일이면 "오늘은 무엇을 배웠지?" 물기도 하고, 그날 배운 것을 준비시키기도 합니다. 이렇게 저희 부모된 사람들이 나름대로 신경을 써서 애쓰는데, 학년이 올라가면서 조금씩 문제점이 생기더군요. 예를 들면, 초등부에서는 하루에 성경 3장씩, 읽으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가만 보니까 한달동안은 잘 읽어요. 그런데 한달 지나니까 안 읽어요. 그래서 스스로 저 자신부터 성경을 갖다 놓고 "너 어디까지 읽었니?"하고 물으면 "잠깐 읽어먹었어요"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가정에서도 가르치는 역할을 해야겠다는 것이었어요.

주교교육 내용을 가정에서 실천·응용하는 것이 중요

실천해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영아부에 출석하는 영아를 가진 부모는 다 느낄 수 있겠지요. 집에서 "자기 전에 먼저 뭘 하지?" 하면 두 손을 모을 줄 압니다. 식탁 앞에서도 그렇고요. 이런 것들은 영아부에서 아무리 배워 주었다고 해도 가정에서 실천·응용이 안되면 별 도움이 안되겠지요. 물론 저희 자녀들이 아직은 주교 I부에 속해 있으니 지금까지는 별 문제 없겠지만 주교 II부(중등부 이상)에서는 또 좀 다르겠지요. 그렇지만 어느 부에 있든 가정은 실천·응용하는 것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김석윤: 저희는 대학부 3년, 1년과 고등부 2년, 고등부 1년 이렇게 4명의 주일학교 학생이 있습니다. 제일 큰 아이의 경우는 우리교회에서 유·초등부, 중·고등부까지 마치고 대학부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대학부 1년까지는 잘 나가더니 2학년부부터는 잘 나가지 않게 됩니다. 참 부끄러워 스스로 반성하는 기분으로 말합니다만, 대학에 들어가 얼마 후부터는 좋지 않은 학생들 불신학생들과 어울리는 듯하더니 하루는 술을 먹은 듯한 기분으로 들어왔어요.



<이 형 수>

대학생 자녀 둔 부모의 어려움

너무 뜻밖의 일이라 깜짝 놀라며 아파와 함께 이야기해 보았어요. “어떻게 된 일이니? 도대체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저희 집은 주급 2,500원 고등학생은 2,000원의 용돈을 주는데, 학교의 어느 친구는 하루 저녁에 십여만원씩 술을 먹는 때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돈을 버는 것도 아닌데 무슨 돈이 그렇게 나겠느냐 집에서 나왔을 텐데 그 친구의 부모가 부정을 해서 것처럼 돈을 벌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기성세대가 이렇구 저렇구 한단 말예요. 그래서 혐오감이 나고 하며 변명을 해요. 그래서 우리 가정의 지난 이야기, 성장과정, 현재의 상황 등을 자세히 이야기하며 타일렀더니 어느 정도 고분고분하더군요. 또 한번은 교회 안가고 친구들과 밀려다니다 사고를 내서 급진적인 손해도 입고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했는데, 그때에야 후회를 하고 무척 미안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자, 이제부터는 교회를 잘 나가는데 어때?” 했더니 꼭 “그래야겠는데 선생님 보기도 창피하고 고인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특별히 기도중입니다.

물론 대학부 1년인데 여자라서 그런지 별 문제는 없어요. 어릴 때부터 고등부까지 중학교에서 자랐고 대학부에 진학해서도 열심히 출석하고 봉사도 잘 해서 기쁘요. 세째도 딸인데 중학교까지는 중학교를 잘 다녔는데 고등학교를 신입생에 입학하고 나니까만 친구들과한대 부끄럽고 그래서 못 나오겠대요. 그때 가까운 교회에 나가게 해서 잘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여학생들에게도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큰딸이 고등학교에 다닐 때 그 학교 학생회에 카바레에 출입한다는 정보를 듣고 일제히 가정방문을 했어요. 그때 오신 선생님이 큰딸더러 년 해당 안되는 줄 아는데 딸 학생들 집을 물어보기 위해서 왔대요. 그 때 큰 충격을 받았어요. 요사이 작은딸이 생활관에 가 있는대요. 사감선생님이 계시고 한때도 생활관에까지 술·담배를 가지고 들어오는 학생들이 있대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새벽마다 자녀 위해 엎드려 기도

그런 دن을 볼 때 막내는 남학생인데 고등부에 잘 나가고 있어요. 오늘날 사회는 이전처럼 문제가 많은데 이런 데에 물들지 않은 것을 생각하면 우리교회가 교육에 많은 신경을 써서 그렇구나 생각되어 감사하고, 이 시대에 자녀교육이란 우리 힘만으론 안되는구나 생각되어 더욱 기도하게 됩니다. 정말 이제 별 도리가 없고 새벽마다 엎드려 기도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하게 되어요.

배옥인 : 저희는 다섯이예요. 대학부 1년, 고등부 3년·1년, 중등부 2년, 초등부 4년 이래서 거의 각부에 끌고루 들어가 있어요. 어머니로서 자녀들을 교회에 보내는 즐거움이 큼니다. 저희 집은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요즘은 흔히 기

주일학교에서 아무리 잘 가르쳐 주고, 잘 배웠다고 해도 이를 가정의 실제 생활에서 실천·응용이 되지 못하면 신앙생활에 별로 도움이 안되겠지요.

독교교육을 이제 학교(미션 제동)에서도 안되고 집에서도 어렵다, 또한 대화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할 수 없다 하는데, 그렇다고 가정에서 손 들고 교회에만 다 맡길 수도 없거든요. 저희 집에서도 대학부에 큰아이를 보내고 있지만 전엔 교회만 간다면 저저 안심했는데 세속의 물결이 교회에도 들어온 이상 아주 안심할 수는 없지 않아요?



〈신 영 대〉

가정에서 교육이 단절되었다는 것이 모든 것이 바빠지고 복잡해지고 또한 자녀들도 여러 모양으로 바빠지고 했기 때문인데요.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죠? 자녀들을 앉았을 때나 서서나 길을 갈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라고 했어요. 시간을 내서 교육을 하는게 아니죠. 관심을 가지고 물어올 때 또 혼자서 고민하고 있을 때를 이용해서 대화를 시작할 수가 있어요.

말씀을 자녀의 생활속에 연결지어야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식탁에 둘러앉아 한마디 하면 다섯 아이에게 다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만나는 시간이 다 달라요. 함께 식사를 한다는게 어렵지요. 아침 6시부터 각각 나가서는 서로 다르게 들어오거든요. 이야기는 해야겠고 그러니까 틈나는 대로 이야기하죠. 식사할 때도 개별적으로 마주앉아 이야기하죠. 아직까지는 제가 이야기하면 잘 알아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은 끊임없이 해야 하지요.

어른들도 몇십년을 살아오고 믿어 오면서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아요? 듣고 알면서도 연약하므로 범죄하는 것처럼 아이들도 계속 해야겠지요. 예를 들면, 화내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집의 경우 자기네들끼리 생활 속에서 다투는 일이 종종 생겨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이야기하죠. “너 지금 화냈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한번은 국민학교 4학년짜리가 일마한데 무엇을 요구했다가 들어주지 않으니깐 짜 돌아서 나가서는 이불을 뒤집어쓰고 있어요. 모른 척하고 가만 있었더니 금방 나와서 “엄마 아까 내가 잘못했어”라고 해요. 신앙의 생활화가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어요.

가정에배도 마찬가지로인 것 같아요. 피차간에 바른 줄 알면서도 예배보자 예배보자 하고, 성경보고 찬송하고 설교하는 것보다는 생활 속에서 이야기하며 생활 가운데 성경말씀과 연결시켜 주어 신앙이 배우는 것만이 아니고 생활 바로 그제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 집 자녀들이 아직 어리니까 그렇지만, 앞으로 대학에서 학년이 올라가고 그래서 세상 학문이 쌓이고 자기나눔대로의 신앙관이 생기고 하면 제 방법이 위축될지도 모르겠어요.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하면 훨씬 수월해지거든요.

신앙인격 위해서는 가정교육이 중요

신영대 : 저희는 3남매인데, 중등부 1년, 국민학교 4학년·3학년에 있어요. 국민학생은 집 근처 교회에



〈배 욱 인〉

학생이 되었을 때에 문제가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주위에서 많이 듣고 또한 보고 있지요.

지금 사회에 나가보면 남를 구별하지 않고 부랑아들이 교회에 전혀 나가보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많은 경우에 교회에 다녔던 사람들이지요. 그러니까 아무리 배웠어도 실천교육이 안되니까 허사로 돌아가버리고 만 것이지요. 김집사님의 말씀이 고등학교까지는 말을 잘 듣고 대학에 가니까 말을 잘 안듣는다 하시는데 대부분이 공통적인 문제예요. 저자신도 우리 아이들이 지금은 어리니까 말을 잘 듣지만 대학생이 되면 내 마음대로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교회 교육 즉 대학부 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저는 부모나 교사나 모두가 우리의 주위 환경을 똑바로 볼 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이뤄져야

아까도 많이 이야기되었읍니다마는 대학생이 된 다음에 더 문제인데, 그것은 우리 주일학교에서도 대학부 교육이 제일 어려운 것으로 많이 화제가 되곤 하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즉 신앙적인 면에서의 문제가 해결이 안되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대학부 자체에서도 문제가 있겠지만 좀더 거슬러올라가 고등학교까지의 교육 중 특히 실천교육에 생활교육에 뭔가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대학생이 되면 지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또 연령적으로도 한창 폭발할 때가 되니까 올바른 신앙이 없으면 틀림없이 잘못 나가는 거죠. 누구 집 자녀가 문제가 아니라라고 봅니다. 이것은 주위의 환경이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한사람 한사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못 맺는다면 어디에 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문제는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대학에 들어가면서 주위환경·신앙문제 등으로 잠시나마 또는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 생활하면서 부모와 교회에 격정을 끼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사실이지만 무척 서글픈 일이지요. 기독교학생들이 밖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며 그렇지 않은 동료학생들을 교회로 끌어들이고 빛 속에 거하게 해야 하는 것이 기독교학생들의 사명인데, 오히려 그들이 그 속에서 함께 생활하고 또 부모들은 최소한도 자기 자녀들만이라도 전진하게 성장해 주기를 바라며 걱정한다는 현실이 슬픈 일이지요. 유치부·유년부 때부터 자라온 학생도 그런 경우가 허다하단니... 아까 김집사님의 경우,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회와 그러니까 예전의 담임교사님이나 지도교역자님을 찾아 도움을 요청한 일이 있었는지 묻고 싶어요. 또한 여러분 모두의 말씀이 가정에서의 실천교육을 말씀하시는대

자녀 교육문제를 생각할 때마다 점점 더 어렵게만 느껴져요. 그래 이제 별 도리가 없고 새벽마다 기도려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걸밖에...

실천교육도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교사]와 가정[부모]와 학생과의 3각관계가 온전히 맺어지지 못한다면 그것도 한계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거죠.

고등학교까지는 그런 대로 집에서 하는 실천교육의 방법이 적용되었는데 대학교부터는 잘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는 중등부·고등부 각 과정과정에서 문제점을 찾아내어 그런 자녀교육상의 문제점을 교회[교사]에 알려주고 함께 공동의 해결책을 찾는 방법등으로 말이지요. 많은 경우에 가정에서 교회에서의 주교교육에 너무 무관심하다는 것이 교사들의 일반적 견해인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교—가정—학생의 연결이 어려운 환경여건

신영대: 좀더 관심을 못 가졌다는 데에 자책을 느끼게 됩니다. 가정이 깊은 관심을 가져주어야 되겠다는 것을 교사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본다면 주일학교 교사는 1주일에 하루, 그것도 한시간 정도 시간에 쫓기어 가르치고 마는데,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학생의 성격·가정·학교성적·교우관계까지 관심을 가지고 생활면에 침투하여 그들의 신앙인적 형성을 위해 바람직한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 과연 주교—가정—학생의 연결이 가능하겠습니까?

배욱인: 주일학교 교육에 가정이 무관심하다는 데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데요, 가정을 떠나 전적으로 교회에서 교육을 한다 라고 할 때도 그래요. 가정에서 못한 만큼 주일학교 선생님이 관심을 가지고 해줘야 하는데 지금 신집사님이 말씀하셨지만 1주일에 한시간 정도의 집속으로는 별로 대화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문제점도 찾을 수 없을 거예요. 그야말로 10~15년씩 주교교육을 받으면서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못 맺는 학생들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명 한명 묶어 줄 수 있다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거든요.

효과적인 개인상담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현재 영아부에서 목요집회시간을 통하여 아이들을 기르는 과정에서 부닥치는 문제점들을 교역자님과 상담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어요. 주교 교사님 모두가 상담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다고 볼 수도 없고 또한 그런 관심을 가지고 학생 한명 한명을 전부 하나님과 묶어주겠다고 사명감을 가진 교사님이 얼마나 되는지,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다 기대를 못하더라도 적어도 각부의 교역자님과 상담할 수 있는 기구를 마련해 주셨으면 어떤가 생각해



〈박 승 준〉

요. 그러니까 부모들과 상담할 수 있는 기구를 말하는 것이지요.

김석윤: 그런 면에서 볼 때, 또 교회교육과 가정의 유대관계를 위해서 1년에 한두차례 심방을 해 주었으면 싶어요.

박승준: 상담의 필요성을 저도 절실하게 느낍니다. 물론 장소문제가 심각하지만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상담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고 상설기구로 상담실을 설치·운영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아까 박집사님은 상담을 지도교역자님이 꼭 맡아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조금 의견이 다릅니다. 각부서에서 직접 학생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님 중에서 선정하여 학생들의 신앙문제와 아울러 생활문제를 함께 다루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성격문제·친구문제·이성문제·군대문제·인생문제, 앞으로의 진로 등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며 상담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상담역을 교역자님보다는 교사님으로 하자는 것은 아무래도 교역자님을 조금 어려워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학생교육 못지 않게 중요한 학부모교육

이 상담실이 잘 운영되면 그것이 교회-학생-가정과의 중간역할을 할 수가 있지요. 학생상담 뿐만 아니라 학부모상담을 같이 하는 거지요. 또 교회에서는 상담을 응해 오기를 기다리지만 말고 만나자고 요청할 수도 있잖아요? 잘 나오던 학생이 몇 주일 결석했다 할 경우, 그 이유를 알아보고 부모에게 연락해서 함께 문제를 찾고 해결책을 찾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 면에서 주일학교 당국에 바라는 것은 영아부·유치부에서는 특강 등을 통해 학부모교육을 시키는데 마찬가지로 각부로 올라가면서 학부모교육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실천교육을 시켜야 하는데 어떻게 시키는 줄을 모르고 있거든요. 제직회나 구역권찰회 등의 시간을 통해서도 잠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가정과 학생과 교회의 유기적인 연결을 위해서 또한 학생 개개인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학부모와 학생을 위한 상담실을 운영하자는 이야기가 무척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교육을 맡아야 할 곳은 역시 교회뿐인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나 사회에서도 카운슬러가 있어서 상담을 해주지만 그들은 잠시적인 문제만 해결해 주지 근본적인 죄문제나 생명, 곧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거든요. 결국은 교회로 그 책임을 교회와 기독교가정 우리 모두가 지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자녀들이 어린이시절에서 중·고등부시절 또 대학부에 올라가서 신앙을 계속 지키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주교교육에 협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주일학교 교육에 바라고 싶은 점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배옥인: 주교 각부에서는 그 부서에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고 보아요. 이것은 말씀을 교수하는 문제나 상

담하는 문제에 있어서나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부서에 교역자님이나 교사님들을 몇년씩 고정배치해서 늘 연구하고 기도하게 해야 할 거예요. 그리고 아까 박집사님 말씀대로 이제 부모들이 배워야만 자녀들을 제대로 교육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모이는 시간시간을 이용해서 담당교역자님이 나와서 강의를 한다든가 해서 학부모교육을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김 석 윤>

학생에 대한 보다 상세한 기록 아쉬워

박승준: 제가 학부모와 교사를 접한 입장에서 이런 말씀 드리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교회가 행정 조직상에는 잘 되어 있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지만 그것이 운영면에서 조금 모자란 것 같습니다. 특히 좀 시정되어야 할 점으로 학생이 상위부서로 진급할 때 소속이 바뀌면서 행정적으로 올라가는 것은 카아드 한장인데 그저 생활기록카아드 한장만 올라오는데 그것은 별로 도움이 못 되어요. 대다수 경우 학생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 학생을 처음부터 다시 파악해야 되니까요. 그러므로 서류를 올려 보면 상세한 기록을 함께 적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특수한 사정이 있는 학생도 지도교역자님과 교사님들께서도 정확하게 인계를 해 주는 그런 것이 매우 아쉬운 것 같습니다.

신영대: 교육위원회에서는 각부별로 부서에 대한 정확한 현황——학생들에 대한 분석자료, 출석상황, 가정상황 등——이 나와 있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문제는 불신가정에서 나오는 학생들에 대한 특별한 배려나 별도 프로그램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입생에 대한 별도교육이 있었으면

박승준: 또 신입학생의 문제입니다. 대개 4~6주간의 과정을 마치고 반배치를 하게 되는데 도저히 이야기가 안되지요. 처음 나오는 학생이 4~6주만에 무엇을 배우고 모태에서부터 밀어 온 학생들과 함께 가르칠 수가 있습니까. 주일학교 각부에서 별도 신입과를 두고 있지만 그것도 문제예요. 각 학년이 다른 학생을 한꺼번에 놓고 가르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새신자 문제는 교육위원회에서 일관성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교재·이수기간·반배정 등을 말입니다.

사회자: 장시간 동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모든 바램이나 소원이 교회에 반영되어 하나하나 이루어져 나간다면 더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당장에는 이뤄지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육을 하는 입장에 있기에 잘못되어 가고 있는 사실도 심각하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주일학교 교육의 문제점들을 또 다른 한편에서 볼 수 있었다는 점이 무척 도움되리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

최종적인 교육은 역시 교회가 담당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회교육에도 상담자가 있지만 표면적 문제만 언급할 뿐 근본적인 죄문제나, 생명 곧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거든요.

한국교회와 세계선교

김 영 한 박사

◇... 1907년 평양 장대현교회의 부흥 이후 일제하의 신사참배강요 수난과 박해를 거쳐 한...
 ◇...국교회는 그 질적인 인내력을 키웠고 성도의 참된 헌신이 어떤 것인지 수련을 받았다...
 ◇...1945년 해방과 함께 다시 우후죽순처럼 전국 각처에서 일어난 양적인 부흥으로 한국교...
 ◇...회는 크게 자랐다. 1950년 한국전쟁 이후 뒤통수와 성도들의 자기 반성과 회개의 역...
 ◇...사를 통해 성령의 강한 은혜가 한국교회를 영적으로 자라게 하였다...
 ◇... 그후 계속적인 군복·경복·형복 제도의 설치 등으로 수천명이 해마다 결신을 하고...
 ◇...있다. 또한 한국교회는 신학적 정론에 복음적 입장에 서서 그 태도를 표명하였다(1960...
 ◇...년대 세속화신학·사신론, 1967년도 미국연합장로교회 신앙고백서에 대한 비판적인 태...
 ◇...도 표명). 이처럼 오늘날의 한국교회는 초기의 어렵고 상처투성이의 역사적 환경 속에...
 ◇...서도 양과 질적인 면에서 점진상승적인 발전을 해왔다...
 ◇... 오늘날 서구 기독교의 기독교시대 이후(Post Christian erus)라는 기독교선교와 문...
 ◇...화의 종말적 상황에 대하여 이와 같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해 온 우리...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받은 은혜는 동남아와 나아가서는 세계를 향한 「세계선교의 과제」...
 ◇...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중대하게 인식되어지고 있으며 타작할 마당에 일꾼이 없어...
 ◇...한국교회를 향하여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누가 나아갈 것인가를 한국교회의 성도...
 ◇...라면 누구나 심각히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C

>차 례<

1. 한국교회의 성장
2. 현대 인본주의 선교신학의 동향
3. 복음주의적 선교신학의 동향
4. 성경적 선교개념의 이해
5. 선교의 책임한계
6. 선교의 동력

1. 한국 교회의 성장

1907년 한국교회가 크나큰 성령의 역사에 새롭게 자성, 탄생하는 그 때에 유럽적인 교회와 신학의 상황은 교회사와 교리사의 대가인 하르낙의 「기독교문화주의」에 영향을 받아 기독교를 단지 윤리와 문화로 이해하는 「내재적 역사주의」에 머물고, 유럽의 교회는 「문화적인 전당」으로 이해하는 세상적인 신앙의 이해가 주된 흐름을 이루던 시기였다.

유럽의 교회가 이처럼 제도화 내지는 화석화되며 「지성주의화」되어 가고 있을 때에 한국교회는 그 반대로 성령의 인격적인 감화와 감동의 역사에 사로잡히는 첫 성령의 은사를 1907년 체험하였다. 이러한 성령의 체험은 후에 한국교회에 들어 닥친 신사참배의 강요라는 시련과 갖은 압박 가운데서도 든든히 설 수 있었던 근원적인 능력이 된 것이다.

한국교회의 이와 같은 성령의 체험과 받은 은혜는 미국과 독일 등 세계가 인정하고 있으며 오늘날에 와서는 한국교회가 이들에게 성령의 감화를 보여줄 수 있는 시기에 접어든 것 같다. 집회 참석 인원수에 있어 교회사적으로 기억될 만한 1974년 빌리 그레함 목

사의 여의도 부흥회에서부터 1975년 대학생선교회(CC)가 주최한 엑스포에 75에 1백만이 넘는 성도가 참가하였고, 1977년 8월에 열렸던 민족복음화성회에는 이보다 더 많은 성도들이 참가하였다.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같은 기도의 능력과 말씀의 융성이 한국교회의 성장이라는 그 자체 속에서만 끝나서는 안된다. 더 나아가 동남아와 세계를 향하여 가지는 크나큰 사명을 지시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한다.

오늘날의 서구교회는 그 건축과 예술적인 가치에 있어 훌륭하고 큰 성전이 단지 1주일에만 한번씩만 사용되고 있다. 교회 예배에서 젊은이들을 보기 힘들며 기도의 열들이 특정한 복음주의적인 단체나 개교회에 국한되는데 비하여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지금 한국에서 계속 불붙고있는 이 초대교회적인 순수하게 기도하는 열성, 성경말씀대로 믿고자 하는 신앙사상과 교회에 일주일 3번씩 모이기를 힘쓰고, 새벽기도하며, 교회 중심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이같은 신앙은 우리 한국교회 100여년의 선교사에 있어서 크나큰 보고(treasure)로서 오늘날의 서구 현대사상이나 신신학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다.

사양길을 걷고 있는 오늘날의 서구 기독교사회를 향해서 그 포교의 문을 열고 스며드는 인도의 신비종교(요가, 아우트케닝, 선형적 명상, 구루 마하라지)와 한국산 이단 문선명의 통일교, 각종 신비주의 집단들이 현대 서구사회를 혼돈시키고 있다. 다른 편에서는 기독교 자체에서 일고 있는 인본주의적 소동(WCC에서 주최되는 선교의 새로운 변모된 신학은 혼합주의적 세계종교 지향, 보편주의적 구원론, 정치적 사회적 해방을 주장한다)은 복음에 입각한 전통적 기독교의 선교관을 변질화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한국개혁

주의적 성도들은 이러한 신비주의운동과 인본주의운동이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몸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향해서 도전하는 적신호임을 잘 인식해야 한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향해서 열려 있는 이 마지막 때에 한국교회는 오직 그리스도(Solus Christus), 오직 은혜(Sola Gratia), 오직 성경(Sola Scriptura)에 의해서라는 우리 한국교회가 선교 100년 사상 지켜온 이 순수한 신앙의 모토를 다시 확인하면서 오늘날 주님께서 주신 「세계의 선교」의 지대한 이 과제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2. 현대 인본주의 선교신학의 동향

소위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라고 일컫는 세계교회협의회(World Council of Churches)의 「현대선교신학의 선교개념」은 1960년대 중반기 이래 스웨덴의 1968년 업살라(Uppsala)의 세계대회 준비 이래로 WCC적 에큐메니칼운동에 있어서 널리 일반적으로 대변화되고 있다.

업살라의 세계대회에서 서유럽과 북아메리카의 연구모임에 의해 제출된 「타자(他者)를 위한 교회」(The Church of Others, 1967년)라는 제목 아래 「교회의 선교적 구조」에 관한 보고서는 사회적 의미에 있어서의 평화(Schalom)와 하나님의 나라를 동일시하며, 이 평화는 「유색인종의 해방, 산업 관계에 있어서의 인간화, 불리한 처우에 있는 시골 지방을 문화적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여러가지 시도, 경제적 직업적 윤리를 위한 투쟁 등」을 통해서 시작된다고 말했다.

이러한 선교를 인간화와 동일시하는 선교개념의 변질화는 「오늘날의 구원」(The Salvation Today)이라는 주제로 모인 1973년 방콕(Bangkok)대회에서 다시 천명되었다. 이 대회에서 WCC의 중앙위원회의 의장인 토마스(M.M. Thomas)는 그의 강연 「오늘날의 구원의 의미, 개인태도 표명」(The Salvation Today, a personal attitude)에서 「교회의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해방운동에서 작용하고 있는 인간영혼생의 원천, 심판자, 화해자로서 증언하도록(예수를 오늘날의 인간의 구원자로서 증언하도록) 우리 시대의 인간해방운동에 참여하는데 있다」(a.a.o 35)라고 말하고 있다. 이처럼 현대적 새로운 선교신학은 선교를 「사회해방의 역사적 과정」으로 이해한다.

이러한 선교신학은 2가지 비성경적인 전제 위에서 성립하고 있다. 첫째, 보편적 구원론의 주장이다. 새선교신학에 의하면 새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의해 하여서 모든 인간은 새 인류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이며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관계 없이 모든 사람들은 구원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보편적 구원론이 성립한다. 이러한 보편적 구원론은 폴·틸리히의 존재론적 신학에 근거하고 있는 신학적 형이상학이지 「믿음을 통한 의인(義認)」을 선포하는 바울의 사상이 아니며 따라서 성경적 특수한 구원론이 아니다.

둘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salvation-history)와 세속의 역사(general secular history)를 혼동한다. 인본주의적 선교신학은 사회의 인간주의적운동(산업적 차별의 폐지, 계급차이의 지양, 인종차별의 극복, 인간해방운동 등)을 하나님의 선교와 일치시키며 따라서 세속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역을 일치시키는 범신론적 역사관에 알게 모르게 빠져 버리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필자 소개>

- 서울문리대 철학과 졸업
- 총회신학교 연구
- 서독조청장학생에 선발
- 하이델베르그대학 철학신학부 박사학위
- 서독 제하임복음주의신학교 초빙교수 역임
- 현재 총회신학교 강사
- 현재 중원성경학원 강사



있다. 여기에 성립하는 선교관은 세계의 「인간주의화」의 운동 속에 작용하고 있는 신의 사역을 인식하고 증언하며 여기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 변모되어 버리는 것이다. 여기서 「회개」라는 개념은 개별적 개인의 영혼의 구원의 차원에서 사회적 측면의 해방과 혁명으로 오인되고 있다. 현 세계복음화위원회 제네바의장 카스트로(Emilio Castro)에 의하면 「나는 나와 나의 환경을 말하는 것이므로 나를 변화시킨다는 것은 역시 나의 인간관계(interhuman relations)를 변화시키는 것이며 사회적 기구, 생산양식, 권력의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처럼 사회주의적 개념으로 성경적 회개의 개념을 변질시켜 해석한다.

3. 복음주의적 선교신학의 동향

이러한 WCC적 에큐메니칼의 세속적 선교운동에 대해서 유럽대륙에서는 복음주의적 선교운동이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는데 이것은 WCC적 선교운동이 혼합주의적이고, 세계종교주의의 지향, 사회복음주의적인 경향에 대하여 복음에 입각한 새로운 성경적 선교관을 정립하는 것에 그 초점을 두고 있다.

1966년 휘턴선언(Wheaton-Declaration)은 현대주의적 선교신학의 새로운 보편주의적(Neo-Universalistic) 선교 이해와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독특성을 강조하며, 성도와 불신자의 구분을 하지 않으려는 현대주의적 혼합주의적 신앙이해에 대해서 그 구분을 분명히 하고, 성도와 불신자의 유일한 차이는 불신자들이 하나님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자기와 화해(화목)하신 사건을 알지 않은 데 있다고 강조하였다.

1970년 서독의 프랑크푸르트(Frankfurt)선언은 업살라 이후 WCC적 선교신학의 현대자본주의적 길에 대한 우리의 표명이었다. 이 선언은 기독교의 진리는 이 세상의 일상관심사(Tagesorannung)를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바 회개와 화목의 복음을 증거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 인간주의화는 선교의 우선적인 목적이 아니라, 기독교 선교의 결과이며 WCC적 혼합주의적 주장(다른 종교와 혁명 속에서도 그리스도가 익명적으로 현존하고 있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절대성을 강조하고 있다.

1974년 서독의 베를린선언(Berliner Erhlärung)은 현대주의적 선교신학이 외치는 새로운 인간주의(der neue Humanismus)가 인간을 우상화하는 위험성을 주장하고 「오직 성경에 의해서(Sola Scriptura), 오직 그리스도에 의해서(Solus Christus), 오직 은혜에 의해서(Sola Gratia)」라는 성경적 개혁주의적 신앙의 원리를 강조



황해도 소재교회,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

하였다.

1974년 스위스의 로잔 의무(Lausanne-Verpflichtung)는 성경의 권위성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멸망성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을 새롭게 천명하여 선교에 있어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였다.

하나님의 창조함을 받은 인간의 천부적 인권의 존엄성과 권위를 강조하고 인권의 정치적·사회적 옹호와 복음선교와 똑같은 기독교의 의무인 것을 강조한다.

이러한 복음주의적 선교운동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유럽대륙을 중심으로, 특히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특기할 만한 일이다. 독일교회 자체 내에서도 이 루터의 개혁주의적 전통에 굳게 선 많은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대학의 신학부에서 강의하고 있는데(W. Künneth, P. Beyerhaus, O. Michael, A. Peters, P. Brunner 교수 등) 이들은 오늘의 WCC적인 선교운동의 반복음적 성격을 경고하며 수차례 독일 국내 선교회의를 가진 바 있다.

1977년 5월 필자가 귀국하기 전에 독일 돌트문트(Dortmund)에서 개최된 독일선교대회(der Gemeinde-Tag)에 참석했는데 이 모임에 약 3만명의 독일인들이 전국 각지에서 모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유일성을 강조하고, 특히 한국교회의 성장과 부흥에 대한 보고를 듣게 되었을 때 깊은 형제적 유대감을 느낀 바 있다.

4. 성경적 선교개념의 이해

앞서 말한 여러가지 선교신학의 일반적인 상황을 제시하면서 이제 성경적 선교개념을 그 근거와 그 내용과 책임한계와 동력에 있어서 밝히기로 한다.

가) 선교의 근거

기독교선교는 그 근거를 먼저 역사적 구속적 사건(예수 그리스도의 화해사건에 이루어진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주님의 명령에 근거한다.

구약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의 약속의 땅으로, 요셉을 흉년에서 그 형제와 야곱의 구원을 위해서 애굽으로, 모세와 아론을 선지자로 「보내시네」 하나님이시다. 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참형상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원형적 「선교사」이시었다.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추한 죄인의 세계에 들어오신 주님은 곧 모든 선교사의 귀감 이시었다.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시고 부활하신 이 주님의 「원형적 선교의 사건」에 우리 기독교선

교는 그 근거를 지니는 것이다. 십자가의 대속과 화해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이 근간적(根幹的) 선교의 사건은 기독교선교에 그 터전을 마련한 것이다. 그리고 그 성격을 규정하는 것이다. 주님의 선교의 목적은 「화해」(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망의 권세에 있는 인류를 회개시키고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는 구속적인 사건)에 있는 것이다.

이 구속적 화해의 사건에 세상사의 목적과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 화해의 사건은 이미 완성된 우주론적인 객관적 사실이며, 현대인본주의 선교신학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인간해방운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화해가 아니다.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라고 땅끝까지 가라는 선교의 분부에 앞서 이 선교의 객관적인 근거를 「십자가와 부활의 화해의 사건」으로 명시한 것이다.

이 선교의 터전으로서의 화해의 사건은 오늘날 세속주의적 선교신학이 지니는 바 세속적 인간해방운동과는 달리 객관적 하나님의 역사와 우주의 통치를 선포하며, 세속의 역사가 구속의 역사와 동일시됨이 아니라, 이 구속이라는 화해의 사건에 하늘과 땅의 모든 사건은 지시연관과 그 쫓점을 지니는 독특한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다. 이같은 주님의 화해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의 권세를 잡은 사탄의 정권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새 구속(Salvation)의 정권이 수립된 것이다. 이러한 객관적이고도 우주적인 화해의 사건의 터전 위에 교회의 세상에 대한 화해복음의 선교의 권한이 부여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의 은총에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선교에 있어 이 놀라운 화해의 사실을 선포하며 눈 앞에 가상적으로 나타나는 이 세상의 이미 깨뜨려진 죄와 사망의 권세를 두려워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용감히 이 화해의 증거자가 되는 데 있는 것이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온 세계와 우주가 우리의 것이라고 증언했다. 역사적 칼빈주의 신앙노선을 걸고 있는 우리 한국 장로교의 세계관은 바로 이 화해된 세계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화해의 통치권이 미치는 영역이신 이 세상을 「고해」나 「죄악과 번뇌의 처소」라는 불교적 세계관을 극복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사망과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세계로 파악하는 적극적인 이해를 지녀야 한다.

나) 선교의 내용

첫째 선교는 화해의 주인공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서부터 모든 족속 모든 나라에게로 「가며, 보내는」 복음선포의 운동이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로 가서」라고 하셨다. 여기에 교회의 특성과 선교의 성격이 밝혀진다.

교회는 단순히 하나님이 거룩하게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별하여 부르신 몸이란 개념과 더불어 이 화해의 넘치는 은혜와 은총의 감격을 모든 불신자들에게 증거하는 복음선포의 사명이 있는 것이다. 교회 「에로」 성도를 부르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내 지방(예루살렘), 남한(유대), 북한(사마리아) 등남아와 온세계(땅끝)에 이르기까지 복음전파를 위해서

「부르시는」 것이다.

선교는 복음전파의 행동이다. 가고 보내는 행동이다. 「교회에서」 시작해서 「모든 민족에게로」 나아가는 십자가 사랑의 행동이다. 넘치는 은혜의 감격의 빛을 갖기 위해서 만나는 사람 사람에게마다 이 놀라운 화해의 사건을 증거하는 은혜의 실천이다.

참으로 성령의 은총과 권능에 사로 잡힌 교회는 자기 스스로에게만 은혜를 감추는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미련함에 머물지 않고, 폐쇄되지 않고, 교회에서부터 기도와 말씀의 능력과 사랑의 원자만으로 무장하여 동남아를 향하여(일본·자유중국·필리핀·홍콩·인도네시아·태국·파키스탄·인도 등), 중동을 향하여(사우디아라비아·이란·수단·이라크·시리아 등), 구라파를 향하여(영국·화란·벨기에·룩셈부르크 등), 남아메리카를 향하여(아르헨티나·브라질·칠레 등), 동 구라파와 모든 공산권을 향하여 이 놀라운 화해의 복음을 외치면서 나아가는 십자가 사랑과 헌신의 행동이다. 세계를 향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를 구속하시고 영생의 길을 여셨다! 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라!」고 외치는 끝고다 사랑의 헌신적 실천인 것이다.

선교하는 교회는 모든 족속더러 교회로 오라고만 하지 않고 스스로 모든 족속에게로 나아가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이 있는 곳에 생명을, 우수와 슬픔과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과 위로와 기쁨을, 증오와 투쟁이 있는 곳에 용서와 화해를 창조하는 「사랑의 원자탄제조소」이다. 교회의 본질은 이러한 선교의 과제에 있어서 역동적이고 헌신적이고, 위에서 내리는 생명의 넘치는 충성을 가난하고 헐벗고 고독하고 버림받은 이웃과 민족에게 값없이 전달하는 십자가의 헌신을 실천하는 감격적 은혜의 모임이다.

따라서 교회는 폐쇄적일 수 없다. 만인이 자유스럽게 하나님께 경배하고 기도하는 집이다. 교회는 또한 기도의 무릎을 통해서 위로부터 받은 바 신령한 은혜를 증거하며 사랑과 헌신봉사를 향하여 열려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처소인 것이다.

둘째 모든 족속을 주님의 제자를 만드는 운동이다. 주님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분부하셨다.

선교운동은 교파확장운동도 아니며 단지 교구확장운동도 아니고 교회확장운동도 아니다. 예수의 새 생명으로 옛 사람이 변화받고 새롭게 되는 생명운동인 것이다. 교회성장은 이 생명운동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다. 더구나 새 사람의 운동이란 단순히 윤리나 도덕으로 새로운 세계관을 지니게 하거나 인간 해방운동과 사회개혁운동에서 나타나는 인본주의적 새 사람이 아니다. 「주 예수의 초자연적인 부활의 새 생명으로 새롭게 지어지는」 생명구원의 운동이다. 부활하신 주님의 복음에 생명의 능력(Dynamit)이 있으니 이 생명의 다이내마이트가 터지는 곳마다 죄와 욕심과 이생의 자랑과 우상숭배와 허영에 따라서 살았던 옛사람이 죽고 의와 진리와 사랑과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다. 또 귀신이 쫓겨나가고, 성령이 거주하시며, 별마가 달아나고, 성령이 주시는 강건한 몸과 마음과 혼을 소유한 하늘 나라의 시민이 되어 「위로 함해 열린 하나님 지향 인간」이 창조되는 것이다.

또한 선교운동은 모든 인간본위적, 모든 우상주의적 모든 내재주의적 이생관(Disseitigkeit)에서 해방되어



한국 최초의 일곱 목사-방기창·서경조·양전택·한석진·이기봉·김선주·송인서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 성령 중심, 그 안에서 교회 중심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하여 복음적 선교의 관심을 행해서 항상 열려 대화하는 「사고방식」의 「개혁」이 이루어지며 이기주의적·자아중심적·숙명주의적·허무적·실존의 근저를 생명의 말씀의 치료와 성령의 기쁨으로 싸매어 변화받은 새 실존의 인격을 소유하게 되는 생명의 운동인 것이다.

선교운동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생명과 사랑의 충만과 풍요속에 교단의 장벽이나 교회간의 장벽이 없으며, 빈부귀천·유색무식·인종·언어·문화의 차별이 문제가 되지 않는 「복음적 새현실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주님의 은혜의 감격 속에 사는 자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결심하는 예수제자운동(Jesus Disciples Movement)」인 것이다.

다시 말해서 선교는 모든 족속을 변화시켜 예수의 제자, 곧 선교사를 만드는 운동인 것이다.

세째 선교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내용을 지닌다. 이처럼 온 민족과 온 세계로 나아가고 보내며, 모든 족속으로 예수의 제자를 삼는 복음운동의 내용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죄와 사망 속에 있는 인류를 하나님과 화해시키고, 주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에게 죄의 용서와 영원한 천국의 시민이 되는 양자의 특권을 주심을 선포하는 것에 있다.

선교는 어떤 교단의 교리나 교단법을 선포하는 것도 아니며, 세속주의자들처럼 인간해방의 인본주의적 이상향이 아니며, 인본주의적 평화(Schalom)도 아니라, 그리스도적인 평화, 하나님 주권의 평화, 새 사람되는 중생을 통한 평화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의 주권적인 평화와 화해의 사역도 항상 사실적인 간증으로 세계와 그리스도의 삶과 기쁨 기쁨으로 받는 성찬식이 동반되어야 하는 것이 주님의 분부에 일치하는 기독교선교의 내용이다.

네째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들의 문화적 사회적 의무가 이 선교의 명령에 함축되어 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은 선교가 옛 사람은 세례와 성찬식을 통해서 교회중심의 생활을 하도록 하게 하며,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영역인 세상의 모든 정치·경제·문화·사회·사상·예술 등에 있어서도 새 사람으로 이 세상에 다시 내보내는 문화적 사명까지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이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행위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와 구속의 역사이다. 이 하나님의 역사에 모든 성도들에게는 삶의 모든 영역에 사상가·정치가·교육자·실업자·예술가·기술



중국에 파송한 최초 선교사-박태로·김영훈·사병순

자신 동시에 「변화받은」 하나님의 선교사로서 나아가야만 하는 거대한 문화적 과제가 놓여 있는 것이다. 역사적 칼빈주의적 선교관의 진정한 의미는 이처럼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 주권이 미치는 처소로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인 것이다.

5. 선교의 책임한계

모든 족속을 주님의 제자와 선교사로 만드는 선교는 교역자나 교회 직분자들만의 책임이 아니다.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 변화받고 새 사람이 된 모든 성도들의 지상적 책임인 것이다. 교역자가 이 선교의 일선에서 복음 증거에 전념하는 「최전방」의 「선교사」라면 일반성도는 후방에서 양식과 말씀전파와 기도의 무기를 공급하는 「후방」의 「선교사」이다. 후방에서 기도와 물질과 헌신으로 돕고 우송하는 이 지원이 약하거나 끊어지게 될 때 최전방의 선교사는 공중전세를 잡은 약한 영과 싸워 생명을 구원하는 중차대한 영적 대전에 고전함을 면치 못하게 된다. 후방 선교사들이 일심으로 합력해서 기도와 물질로 도울 때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자를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 더하게 하실 것이다.

모든 성도들은 선교사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주님과 같이 다스리는 놀라운 특권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것을 항상 명심하여 가는 처소, 일하는 처소,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상처받고 절망과 생의 좌절 속에 있는 자들에게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 예수께로 인도하고, 저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저들의 영적 성장을 간호·시중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할 줄 알아야 한다. 이것이 곧 루터와 칼빈이 성경에서 발견한 세 진리인 것이다.

6. 선교의 동력

세계선교의 동력은 「성령의 능력」이다. 선교의 사명을 명하면서 주님은 「보라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같이 있으리라」고 약속하셨다. 주님은 오늘날도 성령이 강권하시는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다. 교회가 2천년의 역사를 거치면서 일면으로는 제도화나 교리주의·교권주의적인 정체성에 대항해서, 다른 면으로는 인본주의적 세속주의에 대항해서 교회의 본질을 그대로 지니도록 한것은 기독교가 제도의 활용이나 교회정치적 특수성에 있지 않고 초자연적으로 교회 안에서 강하게 말씀의 선포와 세례와 성찬식을 통해서 또는 개인의 은밀한 기도생활과 교회의 합심적인 기도를 통해서 항상 새롭게 역사하는 「성령」의 「뜨거운 능

력」인 것이다.

성령은 단순히 오순절날의 일회적 역사적 사건에서 끝난 것이 아니다. 주님께서 세상 끝날때까지 라고 언약하신 대로 성령은 오늘날에도 기도하며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그 능력을 힘입고자 하는 성도나 교회에게 불꽃듯 부어 주시는 크신 은사인 것이다. 성령은 또한 선교의 유일한 성공의 열쇠이다. 회개와 화해의 복음을 전파할 때, 못사람들로 주 예수의 복음을 영접하게 하며 회개·감동하에 하시는 능력이다.

그러므로 선교하는 교회는 거룩한 성령의 기쁨으로 충만히 채움을 받아야 한다. 교리나 교회법으로 또는 인본주의적 사상이나 교양으로 세련받는 것으로는 선교를 할 수가 없다. 오직 성령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채움을 받아야만 한다. 따라서 선교하는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이다. 찬송하며, 화목하며, 사랑하며, 교제하는 질서의 공동체이다. 교회의 이상적 형태가 초대 교회였다. 초대교회는 오늘날 20세기의 교회처럼 거대한 교회조직도, 교회법도, 교단조직도 없었으나 그 속에 교회의 핵심되는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이 충만하였었다. 이러한 성령의 크신 사역에 의해서 제도적으로 미약한 예루살렘교회는 복음으로 소아시아를 점령하고 로마를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이다.

성령께서는 교회나 교단이 제도화되고 바리새적인 법에 의해서 운영하게 될 때 역사하지 아니하신다. 인본주의적 교회정치 가운데서도 역사하지 아니하신다. 성령은 오직 겸비하고 통회하는 심령과 교회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것이다. 따라서 선교하는 교회는 성령이 동성히 역사하시며 직접 선교하시도록 제도적인 교단법적인 절차에 우선권을 주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권위를 무엇보다도 우선으로 둔다. 그리고 성령의 인격적인 조명을 향하여 먼저 간구와 기도와 말씀의 연구에 우선적인 순서를 드리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성령에 사로 잡히신 바 된 교회를 주님은 사용하시어 안디옥교회가 신약시대에 세계선교를 성공리에 수행할 수 있었던 것같이 오늘날 5대양 6대주의 복음전파에 크게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교회는 아세아에서 복음으로 풍요한 나라이다. 세계 인구의 61%가 되는 아세아 인구 가운데 선교 신자가 평균 1%인데 비하여 한국은 전체 인구의 15%가 선교인이다. 이처럼 주님의 큰 은혜를 받은 우리 한국교회는 불교로 점령된 일본, 힌두교로 점령된 인도, 모슬렘으로 세뇌된 필리핀·인도네시아, 유교·불교로 채색된 자유중국, 붉은 사상으로 만연된 중공·북한 등을 향해서 받은바 은혜의 빛을 쏘아야 하는 중차대한 사명이 있다. 이미 우리 교회는 이 빛을 갖기 위해서 일본·홍콩·인도네시아·이집트(애굽)·서독·아르헨티나 등에 선교사를 파송하였다.

그러나 주님은 추수할 일꾼을 더 부르신다. 타락한 마당에 일꾼이 없어서 주님은 오늘날도 한국교회의 젊은 청년들을 부르시고 있다. 그 가슴에 거룩한 성령의 봉화가 불타며, 진리의 실지가 불타며, 기도의 촛불이 타오르며, 사랑과 헌신의 불이 실사 없이 타오르며, 거룩한 진리의 말씀이 중만히 거하는 젊은 일꾼을 부르시고 있다. 오늘날의 추수꾼! 작은 이시야! 작은 바울! 이러한 일꾼을 주님은 부르고 계시다. 이 주님의 성령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는 자 누구며 누가 손을 높이 들어 「주여, 나를 부내소서!」라고 외치며 나아갈 것인가? (*)

충현교회의 그 시절

이 영 자

그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실 줄 믿습니다. 보잘것 없는 저희 식구들에게 이렇게 매달 기억하시고 정성껏 보내 주시는 월간 충현지와 주보를 받을 때마다 새삼 뜨거운 성도들의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충현지를 통해 충현교회가 발전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자랑스럽고 가슴 뭉클해지는지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마음 든든해집니다.

하나님의 복음사업을 위해 선교사업에 동참했던 자신이 무척 부끄럽습니다. 또한본 선교사를 보내신다는 소식을 접했을 땐 미약하나마 하나님의 복음사업에 동참해야겠다는 마음이 확고해졌지요. 부족하오나 매달 \$10씩을 선교회비로 작성, 송금하겠습니다.

지난번 당회장 김창진 목사님께서 미국의 여러 지역을 순방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셨지만 저희와는 너무나 먼 거리들이어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안타깝던 또 아쉬움이 꽤 오래 지속되었지요. 저희도 충현 지교회가 있는 곳으로 가서…… 아니 바로 이곳 아틀란타에도 충현 지교회가 있으면 하는 욕심이 생겼지요. 제가 자라는 충현을 떠날 수도 있을 수도 없습니다. 살아갈수록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절감하고 또 그 사랑을 생각할 땐 저절로 뜨거운 감사의 눈물이 흘러내리곤 합니다. 정말 주님을 몰랐다면 얼마나 지리하고 고통스럽고 무의미한 삶이었을까를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기에 선교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또 특권인가 봅니다.

저의 형제들을 통해 충현의 소식과 친구들 소식, 또 영아부, 유치부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때

가 옛날 같았던 착각도 들고 또 다시 아이들의 손을 잡고 영아부, 유치부에서 예배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믿음을 키워주며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계속되어졌으면 하고 바랍니다. 하지만 이곳 미국에선 한국적인 고유한 생활이 아니라서 그런지 그렇게 되기는 힘들 것 같아 아이들의 신앙생활 지도에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늘 우리 충현의 무한한 발전과 성도들의 평강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1051. Frazier st. A-7

Reswell, Ga. 30075. U.S.A.

해외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께

해외에 계신 충현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직접 만나 뵙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지면을 통해서나마도 서로 인사를 나눌 수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언제나 여러분께서 월간충현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가족이나 친지들을 통하여 간접으로 미약하고 부족하기 그지 없는 월간충현을 격려해 주시고 과분한 칭찬의 말씀을 하여 주시니 한편 고맙고 한편 송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의 정성이 그토록 해외 성도 여러분께 기쁨을 줄 수 있다는 데 우리 자신도 그저 놀라며 감사할 뿐입니다.

부탁드릴 말씀은 새해 월간충현의 해외 배포망을 다시 한번 정리하며 잘 받아 보고 계시는지 여부를 알아보아 주소를 확인하고자 하오니 바쁘신 중이라도 월간충현에 조금이라도 협조하시는 뜻에서 편지실로 꼭 연락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해외성도의 남은 여러분이 만드시는 뜻에서 신앙간증적인 내용이 담긴 일상생활의 소식을 되도록 자주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월간충현 편집자 드림>

□ 교사 수필릴레이⑤ □

예수 몰랐다면

김 정 자

<유치부 교사>

라이락꽃이 피는 4월 어느 토요일이었다. 우리 어린 친구들(유치부 학생)이 손꼽아 기다리던 야외예배를 어릴이대공원에서 갖기로 된 날인데 아침부터 비가 내렸다. 좀 섭섭했지만 나는 단 계획을 세우는데 비가 점점 멈춰졌다. 전화를 할려다 기왕 내친 걸을 교회까지라도 가 보구서 하고는 교회에 가니 종전에 모두 대공원으로 출발했었다.

나는 교회사무실에 우두커니 섰다가, 땀 속에서 스카프를 꺼내서 머리에 매고 대공원가는 버스를 어딜 가서 타야 하느냐고 물으며 밖으로 나오려는 데 불쑥 건강하고 깨끗하게 생긴 한 미남형의 청년이 두뼘두뼘 내 앞으로 다가서더니 가르쳐 준다면서 문밖으로 나왔다. 고마워서 그럴 여기사 가르쳐 줘도 된다고 하니까 부둣부둣 대공원까지 데려다

준다고 하길래 그럼 버스 정류장까지만 데려다 달라고 했더니 그래도 같이 가자고 하면서 그는 듬성 듬성한 걸음걸이로 제법 앞만 보고 걸어갔다.

할수 없이 교회 문밖을 나와서 잠깐 망설이다가 아무리 교회 사람이라지만 안되겠다 싶어 또 망설이는데, 마침 사무실 R선생님이 날 찾으러 나왔었다. 사무실에 들어가보니 K전도사님이 “우리는 아주 재미있는 데이트가 될 거라고 얘기했는데요” 하면서 회귀회측 야단이다. 체면과 나이답지 않게 웃음을 참는 눈치였다. 그때야 나는 아 이 청년은 정성적인 사람이 아니구나 알아차렸다.

훗날 나는 친구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폭소하면서 놀려댔고 그 중 한 친구는 H문학에 그 내용을 콩드로 발표한 적이 있었다. 나는 쓸쓸하게 웃고 말았지만 이 글을 쓰기 전에 그 청년과 그때 일이 생각났다.

판약에 내가 크리스찬이 아니었다면 나는 그 사람과 같이 목적도 보람도 없는 일에 열심히 일하다가 생을 끝낼 것이 틀림없다. 어떤 분의 글처럼 나는 배 생이 한평생이 아니라 만평생이라도 모두 주님 위한 생을 살겠노라고 주님께 고백하고 싶다.

<다음 지명 : 장현철 선생>

□ 독서 정보

도서실은 여러분을 위해 문을 활짝 열어 놓았습니다

우리교회의 도서실은 신학 및 기독교 관계와 그밖에 많은 서적을 구비하고 성도들이 문헌을 통하여 은혜를 받으며 신앙에 관한 진리탐구를 하도록 많은 이용을 바라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 달 구입한 책과 이미 소장된 책들을 도서대장순에 따라 소개합니다(책명/저자(편자)/출판사).

□ 9, 10월에 구입한 책

- 경건의 지력/양계성/온성문화사
- 구약사/원용국/성광문화사
- 장로학/김득룡외/조광사
- 저 높은 곳을 향하여/박용규/혜성문화사
- 각부교사핸드북/박종구 외/신망에출판사
- 성경동화집 1-10/이태선/백합출판사
- 역사신학강의/박영관/C.L.C.
- 성경교리/김성준/어린이말씀회
- 한국교회사/채기은/C.L.C.
- 대세계사 1-15/조희철 외/정환출판사
- 에베소서주석/헨드릭슨/아가페출판사
- 구원찬송/홍실자·박규현/한국어린이전도협회
- 구약히브리어문법/최희원/성광문화사
- 머리를 써서 살아라/정원식/샘터
- 기도의 정신/포오사이스/성광문화사
- 결혼준비/오야마 레이저/요단출판사
- 금식기도/스미드 레이빗/새순출판사
- 말하는 갈대/지원상/컨클리야사
- 주께서 죽으시던 날/스트라우스/새순출판사
- 생활의 지혜/앨런/정경사
- 종교과학/우찌무라/철우사
- 자연은 하나님의 존재/스탯츠 존
/기독교하나님의성회
- 교육과정지침/주선애/장로회총회출판부
- 오늘의 에큐메니칼운동/이장식/교회협의회
- 비폭력과 사회변화/스티엘 주짓/교회협의회
- 생의 리듬/장성환/기독교교육협회
- 새세대 새윤리/신인현/기독교교육협회
- 성서적 현대적 이해/비스벳 오이겐/분도출판사
- 평화혁명/까마라 헬더/분도출판사
- 소련 지도자에게 보내는 편지/솔제니친/분도출판사
- 예수와 비유/에메미아스 요아킴/분도출판사
- 당신은 성서를 어떻게/제르하르트/분도출판사
- 성서주역의 처방법/클라우스/분도출판사
- 웨슬레신학 연구/조중남/서울신학대학 출판부
- 성경의 중요교리/에번즈 윌리엄/혜문사
- 성경교리핸드북/린절 해럴드/혜문사
- 제3계전교/넬슨, 마알/보이스사
- 하나님 연구자들/제비 얼/생명의 말씀사
- 이것이 그리스도인 삶/메이론드/생명의 말씀사
- 주여 부흥을 주옵소서/스티븐/생명의 말씀사
- 이 괴물을 누구와/프라이스 유지나/생명의 말씀사
- 존 번연의 생애/해리슨/보문출판사
- 주기도의 연구/로버트/온성문화사
- 설교작성법/날·해럴드/태광문화사
- 풍성한 생애/요킴/생명출판사

<독서 캠페인>

□ 한달에 책 한권씩 읽읍시다

.....신문·잡지 얼마를 읽는 것으로 독서한다.....
.....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매일의 생활에 여념.....
.....이 없는 우리 평신도들로서는 중요성을 인.....
.....식하면서도 좀체 책을 대하지 못한다는 것.....
.....이 숨김 없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
.....태로 머무를 수는 없습니다. 우리 신앙 생.....
.....활에 보탬이 되는 귀한 책들을 골라, 적어.....
.....도 한달에 책 한권씩은 꼭 읽는 습관을 키.....
.....워 가자는 의도에서 금년에도 우리는 이와.....
.....같은 캠페인을 벌입니다.

—「월간충현」편집인

★ 추천하고 싶은 책 ★

안 용 준 지음

사랑의 원자탄

4.6판/566면/값1,800원

성 광 문 화 사 발행

정 음 서 립 총판

해방 전에는 신사참배 거부로 여러 해 옥고를 치렀고, 여순반란 때는 좌익난동학생에 의해 두 아들이 순교당했고, 두 아들을 죽인 살인범을 구출하여 양아들을 삼았으며, 25년간을 나환자들과 더불어 고뇌와 아픔을 함께한, 그리고 6.25동란 때는 공산당의 총부리에 그만 순교를 한 손양원(孫良源)목사의 전기(傳記)「사랑의 원자탄」은 깊은 감동과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다.

1950년을 전후해서 이 책의 전편과 후편을 쓴 저자 전 총회신학 교수 안용준 목사는 원자탄의 위력이 보도되어진 곳이면 이 사랑의 원자탄의 애력(愛力)도 알려지기를 소원한다면서 저자는 이 글을 눈물로 시작해서 눈물로 마쳤다고 고백하고 있다.

이 사랑의 이야기는 영문판「The Seed Must Die」(씨앗은 죽어서)를 시작으로 독일어·인도네시아어·태국어·파키스탄어로 번역 소개되는 중에, 저자는 다시 일본을 모르고 공산주의를 모르고 자란 중·고등 학생들을 위한「사랑의 원자탄」의 축소판「씨앗은 죽어서」를 1972년에 내어놓기도 하여 그야말로 국내외적으로 손목사와 그 가족의 신앙실화가 점점 세계화되어 가고 있다.

더우거나 이 책이 믿음의 감독 강대진 집사의 감독, 기독교신자성교회 후원으로 영화화(문화공보부 선정 우수영화)되어 이달부터 대한과 세기 두극장에서 상영하게 되었다는 것은 금상첨화(錦上添花)격이 되어 이 책을 읽고 영화까지 볼 수 있다면 우리 신앙생활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은 물론 세계복음화에 빛바침될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조선근 장로<월간충현 편집위원>

1700년 2월 26일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

이 형 수

월간목회(月刊牧會)에서는 지난 3개월간 부록으로 찰스 몬로 쉘돈(Charles Monroe Sheldon)의 In His Steps(주의 발자취를 따라)를 번역·소개하였다.

주의 발자취를 따른다는 것이 과연 어떠한 것인지 생각해볼 수 있다는 점 외에 흔히 기독교인의 잘못된 부분을 크게 부풀려서 기독교인이나 교회를 꼬집고 고발하거나, 일반소설에 교회를 슬쩍 뒤집어 써서 기독교소설이라는 것이 대부분인 우리 기독교문학에 지향할 새로운 한면을 볼 수 있다는 데도 좋은 모범이 되었을 것이다.

미국의 레이몬드라는 도시의 어느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헨리 막스웰 목사는 어느 주일 예배 후 교인들에게 이상한 제안을 하면서부터 사건은 일어난다. 그 제안은 앞으로 1년동안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리고 어떠한 결정을 하든지, 또한 어떠한 행동을 하기 전 반드시 「주님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셨을까?」를 스스로 물어 보고 그 답에 의해 모든 일을 할 것을 희망하는 사람은 함께 서약하고 그대로 행할 것을 제안한다.

이 제안에 찬성하고 나선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이 소설의 내용이 되고 있다.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라는 이 물음은 신문편집인의 기사선택에서, 철도의 소프라노 가수의 앞날을 결정하는 문제에, 미도노조 임원의 부조리에 대한 판단문제에, 대학교 총장의 사회참여문제 등등에 기독교인으로는 당연한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의 가치판단에 큰 척도가 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들은 늘 일상의 기도 속에서, 또한 부흥회나 수양회 또는 헌신예배 등을 통하여 너무도 많이 그리고 쉽게 헌신을 다짐하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를 것을 결심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할 것을 약속하고자 한다. 그러한 우리의 결심이나 약속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 과연 주님을 따른다고 결심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하며 결심하고 헌신하는 것인지 생각해 보자.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닥친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결정해야 하고 행해야 하며 심지어는 발상(發想)까지에도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를 스스로 물어보고 그 대답에 따라 행동할 수 있다면…….

성령충만을 갈구하는 소리가 높아가고 또한 잘못된 성령운동의 비판의 소리가 교차되는 현실에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이 우리의 모든 생활에 적용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적절한 성령운동이 있을 수 있을까.

찬송가 해설②

저 밭에 농부 나가

(We Plow the Fields, and Scatter)

새 572; 개 535; 합 564

저 밭에 농부 나가 씨 뿌려 놓으니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 주셨네
또 사시순환 따라 흰 눈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주시 그 사랑 한없네
우리 쓰는 만물 다 주의 것일세
그 내려주신 은혜를 늘 감사드리세

여기 하나님의 정계의 매를 맞고 곧 뒤우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마침내 위대한 찬송가 작가가 된 사람이 있으니 그가 이 찬송의 작시자 마티아즈 클라우더우스(Mattias Claudius)이다.

그는 1740년 독일 홀슈타인(Holstein)의 뤼벡(Lübeck) 부근에 있는 파인펠트(Reinfeld)에서 루터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1755년부터 1759년까지 라틴어 학교를 다닌 후 그의 아우 요시아즈(Josias)와 더불어 예나 대학에 들어가 신학 공부를 하고 1759년부터 1763년까지 그 대학에 머물렀다. 이때 구라파의 기독교는 합리주의의 세균에 감염되어 진통을 겪던 때였는데 마티아즈도 이 병균에 감염, 신앙적 열의는 식어질대로 식어져 마침내 범과 어학으로 방향을 전환하기에 이르렀다.

마티아즈는 종교에의 관심을 잃어 버리고 신학에서 방향을 돌려 신문인이 되어 한부르크의 문학편집 담당으로 있었다. 1776년 푸랑코프트의 북쪽에 있는 햇세담슈타트 영지의 농산부 농정국장으로 임명되어 거기에서 시인 괴테와 다른 자유사상 철학자와 사귀므로 그의 종교관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 그는 기독교를 완전히 무력하게 만드는 일익을 담당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의 아우가 폐병으로 죽어간 후 마티아즈 자신도 폐출혈병으로 피를 토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는 동안 그는 자신이 걸어온 길이 얼마나 잘못 되었는가를 하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감히 하나님의 기적을 부인했던 자신이 바로 그 기적을 구해야 했으니 참으로 아무 자력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다. 그는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기적을, 진실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구했다. 그의 간절한 기도는 마침내 하나님께 상달되어 옛날 어린 시절의 신앙으로 되돌아올 수 있었고, 하나님의 기적은 중병을 낫게끔 하였다.

그는 거듭난 후 진정한 크리스찬의 정신으로 새로운 삶을 찾기 위해 수익성 많고 화려한 농정국장의 자리를 버리고 문학편집인으로 있던 만드즈벡으로 돌아가서 옛 일을 시작했다. 옛날 병들었던 신앙의 마티아즈가 아니라 전혀 새롭고 활동적이며 적극적인 신앙으로서의 발걸음을 내딛은 것이다.

이 아름다운 감사절 찬송은 1782년에 쓴 것으로 농정국장을 지낸 사람이 쓸 수 있는 적절한 찬송이다. 그가 이 찬송을 쓴 것은 성경상의 교리나 밭갈고 씨뿌리는 비유를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 단지 어린이같은 마음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썼다는 것이 특징이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땅을 마련해 주실 뿐 아니라 그의 농사에 필요한 모든 것—햇빛과 공기, 단비와 이슬 그리고 눈등 모든 것을 마련해 주셔서 땅이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신다는 감사찬송이다.

권찰의 직무와 자격

차 례

- I. 직분자의 기본적 자격
- II. 직분자의 기본적 사명
- III. 직분자의 기본적 자세
- IV. 직분자의 기본적 교회관
- V. 각론(장로·집사·권찰·교사·성가대원)
- VI. 봉사의 원리
- VII. 봉사자가 받는 축복

우리 교단의 헌법적 규칙 제10조에 권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제직회원 외에 권찰을 세워 교인을 심방하는 일을 맡길 수 있으니 신앙이 독실한 남녀 교인 중에서 목사나 당회가 권찰을 임명하되 그 임기는 1개년이요 혹은 제직회원으로 권찰의 임무를 겸무하게 할 수도 있다”

“권찰의 임무는 구역을 정하고 남녀권찰에게 맡겨 매주간 혹은 매월 교인의 가정을 방문하고 믿지 아니하는 가정을 심방·전도하며 구역기도회도 하고 매월 정기권찰회로 회집하여 구역형편을 각각 보고한다”

이상과 같은 권찰규정에서 우리는 권찰이란 어떤 직분인가를 찾아볼 수 있다.

첫째로 권찰은 교회의 직원(제직회원)은 아니지만 교회봉사에 있어서 그 임무가 매우 중요한 직분이다(제직회원이 겸임할 수도 있다).

둘째로 권찰은 목사나 당회에서 임명하되 그 임기는 1년이다.

세째로 권찰은 목사의 지도를 받아 구역 내에 사는 교인들의 신앙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매주마다(우리교회는 매금요일)심방하면서 교인들의 안부를 살피고 예배출석을 독려하며 새로 이사온 가정이나 새로 믿은 신자들을 돌보며 구역내에 사는 성도들로 하여금 성도의 교제나 교회봉사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 그리고 교인의 가정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에는 즉시 목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한 믿지 않은 가정에도 심방·전도하여야 한다. 이것이 권찰의 중요한 직무이다.

네째로 권찰은 무엇보다도 믿음이 독실한 신자이어야 하며 인격적인 면에서도 구역내에 사는 성도들이나 불신자들에게도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권찰은 그 구역내에 사는 성도들의 가정을 심방하면서 신앙생활을 보살피는 구역의 지도자는 봉사자이기 때문이다.

다섯째로 권찰의 직무를 바로 감당하려면 아래의 사항을 꼭 유의해야 한다.

<심방할 때 유의할 사항>

① 심방하기 전에 먼저 기도로 준비해야 한다. 자신의 말과 행동에 실수가 없도록 기도하며 심방받을 사람을 생각하며 기도해야 한다. 더욱 성령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구해야 한다.

정 상 우 목사

<부목사·교육위원장>

② 복장은 단정히 하여야 한다. 특히 슬픔을 당한 가정이나 가난한 저정을 심방하고자 할 때에 주의해야 한다.

③ 심방할 때에는 언제나 성경·찬송과 필기구를 꼭 가지고 간다. 교인들의 부탁이나 약속은 그때 그때 기록하도록 습관을 들여야 한다. 목사에게 보고할 사항도 기록하도록 한다.

④ 어떤 심방을 가든 좌석을 바로 정하여 앉아야 한다. 주장하실 분이 먼저 앉은 후에 함께 따라간 분들은 그분을 중심으로 하여 좌우로 앉는다. 주인은 출입하기 쉽도록 문결에 앉게 하는 것이 좋다.

⑤ 가정의 형편과 사정은 미리 알아두어야 한다. 미처 모르는 것을 물어야 할 경우에는 덕이 안되는 일까지 캐묻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⑥ 인사의 교환은 친밀감이 있고 다정하면서도 정중해야 한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너무 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예배의 분위기를 산만하게 만들 염려가 있다. 특히 특별심방일 경우에는 예정시간을 넘지 않도록 심방할 가정에 사전에 충분히 말해 두어야 한다. 권찰들은 음식을 만들거나 차리는 일에 협력해 주는 것이 좋다.

⑦ 심방중·심방간 집의 물건에 대하여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좋고 물건에 손을 대어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⑧ 현금을 내달라고 부탁하는 경우 대예배시에 직접 드리도록 권하고 그 외에 돈은 물론 물질가래를 일체 삼가야 한다.

⑨ 크고 작은 일을 가리지 말고 심방결과를 담당교역자에게 반드시 보고한다.

<권찰 수칙 10조>

① 권찰은 구역의 지도자며 봉사자이다.
② 권찰은 매월 정기권찰회와 심방준비회에 꼭 참석한다.

③ 권찰은 시간을 존중하며 잘 지키고 교우들의 심방에 신속하고 예절이 있어야 한다.

④ 권찰은 영적 생활을 힘써 구역 교우와의 모든 교제에서 본이 되어야 한다.

⑤ 권찰은 자기 가정에서부터 그의 임무를 다해야 한다.

⑥ 권찰은 성경을 힘써 연구하고 구역의 교사가 되어야 한다.

⑦ 권찰은 약하고 병든 교우의 좋은 위로와 상담자가 되어야 한다.

⑧ 권찰은 교우들의 사사로운 일을 결코 공개하지 않는다(교인들의 개인적인 비밀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꼭 지켜야 한다).

⑨ 권찰은 교우들과 금전관계를 삼가하고 흠이 없어야 한다.

⑩ 권찰은 구역 교우들에게 항상 덕을 세워야 한다.

매스컴 · 교육 · 의료기관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

윤 형 철 전도사

<중동부지도 · 종신연구원 3년>

지금까지 대표적인 이단종파들의 교리를 약술하여 살펴 보았다. 이단종파들은 전 세계적으로 1900년대에 들어서면서 핵분열처럼 폭발적으로 퍼지기 시작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약 30~40년 사이에 놀라운 정도로 그 세력을 확장시켜왔다. 이들이 이처럼 짧은 기간 동안에 괄목할만한 확장을 보인 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이유는 이들이 교회(?)내의 활동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오히려 교회 밖에서의 활동, 즉 포교(국내전도와 국외선교)에 깊은 관심을 갖고 여기에 모든 활동과 재정적 지원의 초점을 집중시켰기 때문이다. 이단종파들의 공통된 포교활동을 다음 몇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다.

1. 전도 위해 회원들을 집중적으로 훈련시킨다

대부분의 이단들은 그들의 회원들에게 성경의 진리를 좀 더 깊이 깨닫게 하고, 말씀연구를 통하여 은혜 받게 하기 위하여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교리를 변조하고, 포교하기 위하여 성경을 가르치고 훈련시킨다. 그들은 잘 훈련된 회원들로 하여금 호별방문하여 전도케 하고, 가정에 들어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가르치게도 한다. 대표적인 것이 여호와 증인들과 물몬교인데 여호와 증인은 매주 일정한 시간을 전도를 위해 일해야 하며, 물몬교에서는 청년들로 하여금 일생 1~2년간은 자비로 선교사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문서활동을 통해 전도한다

이단들은 호기심을 유발시킬 만한 책자를 대량으로 발행하여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보급하여 전도하고 있다. 여호와 증인은 월 2회 「파수대」와 「깨어라」를 발행하고 있으며 안식교에서는 「생명과 건강」이란 책과 월간 「시조」(時兆) 등을, 전도관에서는 「주간 국제 기독교 신보」를, 통일교에서는 「주간 종교」 및 「월간 통일 세계」, 「국제승공」 등을 발행하며 포교하고 있다. 크리스찬 사이언스는 미국내 일간지인 「크리스찬 사이언스 모니터」지에 매일 전도문을 포함시켜 출판하고 있으며, 큰 도시마다 독서실을 세워 자기들의 선전문서나 책자를 대량으로 비치해 놓고 있다.

3. 매스컴을 통해 전도한다

안식교에서는 「에언의 소리」 방송을 통하여 방송전도하고 있으며, 물몬교도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통해 물몬교 포교를 위한 특별프로를 방송하고 있으며, 크리스찬 사이언스는 미국내에서 「크리스찬 사이언스 치료방법」이란 텔레비전 시리즈를 방영하며 라디오를 통해서 「성경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의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다.

4. 문화활동을 통해 전도한다

통일교는 「한국 문화재단」이란 기관을 설립하여 이 기관의 활동을 통해 국내외의 포교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선화 무용단」(리틀 엔젤스), 「한선 무용단」 「새소망 합창단」등의 공연과 연주를 통해서 국내외의 국에까지 통일교를 선전하고 있다. 전도관에서도 「시온 합창단」과 스포츠(농구 · 탁구 등)를 통하여 포교하며, 물몬교는 「물몬 합창단」과 특히 파이프 올겐 연주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포섭한다. 특별히 안식교는 전 세계적으로 병원과 진료소를 세워 의료활동을 통하여 포교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서울과 부산에 「위생병원」이 있다.

5. 교육기관을 통해 전도한다

교육활동이 가장 활발한 것은 안식교와 물몬교다. 안식교는 그들이 포교하는 곳마다 의료기관과 함께 교육기관을 세워 포교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안식교 산하에 12개의 국민학교와 14개의 중 · 고등학교와 삼육대학이 있으며 영어학원(S.D.A.)를 운영하고 있다. 물몬교는 미국 유타주에 훌륭한 교육기관을 갖고 있으며 여기에서 철저한 물몬교 원리를 교육시키고 있다. 전도관도 학교법인 시온학교(유치원, 국민학교, 중 · 고등학교, 상업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통일교도 「통일사상 연구원」, 「전국 대학원리연구회」 등을 통하여 포교하고 있다.

그 외에도 통신강좌 · 대중집회 · 심포지움 · 연합운동 · 사상강좌 등을 통하여 포교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한가지 놀라운 것은 이들은 자기 집단에 대하여 놀라운 애착심을 갖고 포교를 위한 출판사업이나, 교육사업, 라디오, TV방송, 기관 설립등을 위해서는 개인의 시간과 물질을 아낌없이 투자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몇가지 대표적인 포교활동은 우리에게 큰 자극과 교훈을 준다. 이단들은 거짓된 교리를 전하기 위해서도 개인의 시간을 바치고 물질을 투자하고 노력과 정성을 쏟고 전력을 다해 전도방법을 연구하는 데 반하여 우리는 구원의 순수한 복음을 소유했으면서도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일에 아직도 열정과 정성이 부족한 듯하다. 물론 우리 교회는 현재 해외선교를 비롯하여 방송전도, 문서전도, 농어촌전도 등을 하고 있으나 만족스럽다고 자부할 수는 없다.

우리 종헌교회는 한국을 위해서는 예수말씀교회의 사명을 담당해야 하며, 세계를 위해서는 세계를 우리의 선교무대로 생각하고 안디옥교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이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기도와 효과적인 전도방법 연구가 필요하고, 우리 각자의 개인 시간과 물질과 정성과 노력을 보다 많이 그리고 정성스럽게 투자해야 할 것이다.

시편에서 주는

주간의 만나

시편 19:7

말씀의 효능

『여호와와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와 율법은 완전」합니다. 루터는 말하기를 “참 책은 오직 한 권 성경이요, 참 사람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은 1천6백여년에, 40명의 손을 통하여 66권이 기록될 때에, 그 필자는 법률가·제왕·노동자·농부·어부·세리 등 가지각색 인물이 기록하였습니다. 또 그 내용은 역사·율법·노래·예언·서신 등 여러가지 내용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전 성경이 통일되지 않은 부분이 전혀 없고, 모순도 없고, 시종일관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몇 천년 동안 반대하는 자가 수없이 일어났고 핍박을 한없이 받았으나 이 진리는 날이 갈수록 더욱 완전한 책인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영혼을 소성케 하고』 루터가 낙심하여 수실에 잠겨 있을 때에, 로마서 1장 17절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한 귀결이 그의 생명에 힘을 주었습니다. 세상의 어떤 책이 사람을 살리니까? 성경뿐입니다.

시 20:1

야곱의 하나님을 자랑합시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높이 드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할 이유는, 야곱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① 야곱의 하나님은 약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힘이 세어서 사냥을 잘하는 교만한 에서는 물리치시고, 힘이 없고 못나 보이는 겸손한 야곱을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② 야곱의 하나님은 회개한 자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기의 잘못된 것을 뼈깊이 깨닫고, 뉘우치고, 고치려고 재출발하여 보려는 야곱의 과거는 다 용서하여 주시고, 그에게 권리·재산·생명의 은총을 더 많이 주신 고마우신 하나님이십니다.

③ 야곱의 하나님은 약속을 꼭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칼을 피하여 지팡이만 들고 도망갈 때에, 빈 들 무성고 외로운 밤에 꿈속에 나타

나시어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므로 금의환황하게 될 것을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권세와 능력으로 그 약속을 다 이루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자랑합니다.

시편 21:1

참된 기쁨

『여호와여 주의 힘을 인하여 기뻐하며 주의 구원을 인하여 크게 즐거워하리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모으고, 권세를 얻고, 아들딸 낳고, 입신양명(立身揚名)하는 중에 기쁨을 두지만, 다윗왕의 기쁨은 하나님의 힘을 통하여 받았습니다. 다윗이 지금까지 일생에 받은 모든 복은 자기가 잘라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다윗을 승리케 하시므로 받았습니다.

또 다윗의 즐거움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은 데 있습니다. 다윗은 소년 때부터 너무 여러번 많은 어려움을 당하였으나 그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약속하신 대로 다윗을 구원하셨는데, 이번에는 암몬 왕 하논이 연합군을 편성하여 다윗왕을 쳐와서 이스라엘을 삼키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왕을 불드심으로써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암몬의 서울 랍바를 쳐서 점령하고, 왕이 쓰던 크고 화려한 금면류관을 빼앗아 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온 백성과 함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시편입니다.

시편 22:5

부끄럽지 않은 생활을 합시다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나이다』

남보다 뒤떨어지면 부끄럽습니다. 또 실패자가 되면 부끄럽습니다. 전쟁이나 경기에 져도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죄를 숨겨 두었다가 발견되면 가장 크게 부끄럽습니다.

절개를 지키지 않고 죄를 범하고, 더러운 욕심 때문에 죄를 범하고…… 이런 죄를 회개하지 않고 숨겨 두었다가 그 죄가 드러나면 만민에게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주 자주 부끄러움을 당하면서도 고치지 못하면 필경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고 사람에게도 버림을 받게 되어서 하나님께 욕이 되고, 남에게 폐가 되고, 자신은 망신을 하고 천대와 멸시를 당하고 마음의 번민과 몸의 고생과 영은 지옥에 가게 되어 차라리 세상에 나지 않은 자만도 못한 적자인생이 됩니다.

그러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자는 누구입니까?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여 성령의 권능을 받아 속사람이 권능을 힘입어 죄악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구역소식

축하합니다(10월 중 결혼)

- 장규원군/정예순 집사 2남, 1일 오후 1시, 수
도예식장
- 홍인수군/홍영옥 집사 동생, 백희연양/10일 12
시, 충현교회당
- 홍기옥양/구의구역 장만실씨 장녀, 15일 오후 2
시, 충현교회당
- 최길선양/김은에 권사 장녀, 11일 12시, 영락교
회당
- 김홍장군/전철금 집사 장남, 13일 오전 11시 30
분, YWCA
- 신병천군/신현상·심 숙 집사 장남, 27일 오후
1시, 한국일보사
- 신순주양/유귀순씨 딸, 27일 오후 2시, 충현교
회당
- 김순호양/김영상씨 3녀, 28일 오후 3시, 로얄
호텔
- 이경애양/29일 오후 1시, 충현교회당
- 김광수군/성복순 집사 아들, 29일 오후 2시 30
분, 종로예식장
- 김용수군/백복영 권사 2남, 31일, 충현교회당

위로드립니다(10월 중 별세)

- 홍익성씨/최현구역, 17일 별세
- 조경순씨/돈암구역, 18일 별세
- 하상규씨/정순도 집사 시부, 21일 별세
- 김명서씨/한안자 권찰 부군, 26일 별세

구역교사 선발에 앞서—

전 구역원들에게 드리는 말씀

새해부터는 구역이 대폭 증설(53개 구역)됨에 따라 지금까지 교역자들과 장로들만이 가르쳐 온 구역공과를 구역장이나 아니면 선발된 교사에 의해 인도하는 일로 구역교사제도를 신설하는 문제를 장로들간에 숙의중에 있습니다.

구역 교사는 집사나 권사 혹은 장로까지 포함해서 유능한 분들로 임명될 것인데 구역장직을 겸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게 될 것입니다. 구역교사는 비록 구역장이 아니라 해도 구역행정에 관해서 성도의 교제법과 그밖의 행사에 관한 지도를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역교사는 임무수행상 자동적으로 권찰회에 참석하게 될 것이며 구역장과 협력이 있어야 할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앞으로 구역교사로 선택받는 이들은 준비공부시간에 꼭 참석하고 평소에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구역의 부흥과 구역원들의 영적 실력을 키워주는 데는 구역교사들의 실력과 인격적인 감화력이 크게 작용되기 때문입니다. 새해에는 구역활동이 더욱 활발해 질것을 기대하면서 기도와 참여가 있기를 바랍니다.

구역권찰회 회장 백 성 룡

해외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 구역장 노우트 22 ■

신앙지도의 지침 (14)

백 성 룡 목사

<부목사·구역권찰회장>

③ 인권운동이 기독교적 해결책과 그 목적에 대하여 기독교는 물건나누어 주는 자나 재판자로 자처해서는 안된다는 것과 적극적으로 선한 이웃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이미 말했다. 이제 좀 더 근본적인 방향을 모색함으로써 기독교적인 인권운동이 무엇임을 천명해야 할 줄 안다.

사도행전 3장에 나타난 성전 미문에 앉어 구걸했던 앉은뱅이의 사건은 이 문제의 핵심을 잘 지적해 주는 사건이라 볼 수 있다.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에게 돈한푼을 보배주는 사람들이야말로 그 결인에게 선한 이웃이 되었음에는 틀림없었다. 그리고 그 결인은 구제금으로 연명해 가야 했고 또 그렇게 해야만 살다갈 권리를 누리고 있었기에 그 사람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기보다는 인권운동정신으로 볼 때 당연한 일이라고 해야만 옳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아쉬운 것은 본의는 아니지만 그가 사람으로 태어나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못한 채 그런 권리만 행사한다는 데서 자신도 몇몇 하지 못했을 것이고 누가 뭐라고 말하지 않아도 비굴한 태도를 보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기독교는 구제를 매우 중요시한다. 그러나 기독교가 구제기관은 아니며 근본 영혼을 구원하고 믿음의 힘으로 스스로 살아가갈 수 있도록 계속 영력을 공급하는 사람의 화신(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러기에 베드로와 요한은 돈을 주는 대신 예수님의 이름을 주었고 동시에 결인의 손을 잡아 일으켜서 기적으로 건강을 찾아 자유로이 활동할 수 있도록 역사했던 것이다. 이것이 기독교적인 「인권운동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이다.

(4) 사회참여와 교회의 자각

이제 사회참여에 관하여 말을 맺고자 한다. 그리스도인의 사회참여는 성경을 바탕으로 한 사회개혁운동이며 사회복음화운동이어야 할 것과 진정한 의미의 인권운동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 교회는 종종 오류를 범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것은 교회가 그시대의 이용물이 되다싶이 되어버린 때가 있었다는 점인데 사실상 세상적으로 교회는 어떤 특권층의 이용가치가 그만큼 있는 것이고 또 이용당할 열려는 항상 있는 것이다.

그 원인은 교회구성원들의 사회적인 성분이 성경의 권위나 건전한 신학사상을 압도할때와 밖으로부터 오는 유혹과 박해에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회에 대하여 선지자적인 또한 제사장적인 본연의 사명을 다하는 데서만 사회참여의 의미를 찾을 것이며 밖으로부터 오는 환난을 대비할 것과 교회 안에서 좀먹어 가는 독소들을 항상 경계하지 않으면 부패와 속화를 막을 길이 없는 것을 알아야 한다.

새로이 장로 여섯분을 선출

—김영개 · 김방진 · 강순용 · 마성락 · 신영대 · 김차생—



·김영개 ·김방진 ·강순용 ·마성락 ·신영대 ·김차생

지난 10월 30일 주일 낮예배 때에 실시된 장로 투표 결과 당선자가 없어 저녁 예배 후에 속개된 투표에서 새로이 6명이 장로로 선출되었다. 당초 목표였던 7명에서 1명이 모자란 6명이 선출된 이번 투표는 예전과 같이 질서 정연한 가운데 무사히 선거가 실시되었다. 이번에 피택된 사람들은 새해 3월 노회에서 고시·승인되면 당회가 정한 날과 장소에서 장로장립식을 거쳐야 한다.

새해 교회 임역원 임명

—1978년 한해를 이끌 각 기관장 및 주교 부장—

지난 11월 15일(화)에 모였던 임시당회에서 1978년 한해를 이끌고 나아갈 당회산하 각 기관의 기관장 및 주일 학교 각부 부장이 임명되었다. 이번 인사 이동에는 주일학교 각부 부장의 대폭적인 이동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 외의 각 기관은 대부분 그대로 유임되었다. 그런데 1978년 우리교회 당회산하 기관 및 지회는 올해 신설된 충청출판위원회를 비롯하여 19개 기관이다. 그외에 제직과 성가대원·교사 임명일정을 보면 11월 27일에 권사·집사 임명, 12월 4일 구역장·권찰임명, 12월 11일 주일학교 교사·성가대원 임명이 있을 예정이다.

새로이 임명된 1978년 임역원은 아래와 같다.

1. 당회: 회장/김창인 서기/송순일 부서기/이태규
2. 제직회: 회장/김창인 서기/강순용 부서기/손동운·박치민
3. 구역권찰회: 회장/백성룡 서기
4. 성가부: 부장/임광식 제일성가대장
제이성가대장/여성성가대장
5. 교육위원회: 위원장/정상우
6. 전도위원회: 위원장/최석주 지도/정기성
7. 재정위원회: 위원장/윤종성
8. 건축위원회: 위원장/김기정
9. 동산관리위원회: 위원장/한명옥
10. 인사위원회: 위원장/김창인
11. 장학위원회: 위원장/김창인
12. 성경학원: 원장/김창인 원감/최석주
교무/김배현
13. 충현동산(재단법인): 이사장/김창인
14. 충현출판위원회: 위원장/조현명

※「월간충현」은 충현출판위원회 산하로 됨

15. 해외복음선교회: 회장/위영환
16. 충현기도원: 관리사무소장/우성원
17. 주일학교: 부장/지도/부지도/남부감/여부감
- ① 새신자부(어린이): 김한울/이승근/이양우/서일영/명정옥
- ② 새신자부(장년): 김한울/ /이옥경/강순용/명정옥

- ③ 영아부: 김은호/정소영/이우신/정하우/배옥인
- ④ 유치부: 김의철/정연희/장선애/박치민/이외복
- ⑤ 유년부: 윤명식/김영희/김양태/강은원/이정애
- ⑥ 초등부: 한경일/김석원/김정훈/박승준/이신일
- ⑦ 중등부: 김중석/윤현철/ /손동운/문옥순
- ⑧ 고등부: 이웅선/이승근/ /김영개/이순녀
- ⑨ 산업전도교육부: 오태희/김하진/김수성·김순애
/김방진/정신화
- ⑩ 대학부: 윤용규/정관일/김영한·김경선/김차생
/김상순
- ⑪ 청년부: 홍중섭/윤영탁/이준교/박재용/안윤진
- ⑫ 장년부: 이원철/김종택/ /신영대/이영주
- ⑬ 노년부: 정석태/김재창/박현모/이봉량/김정옥

토막소식

- *...우리교회는 오늘 「추수감사절」로 지킨다.
- *...지난 11월 6일부터 저녁예배 시작시간은 오후 7시로, 새벽기도회 시작시간은 오전 5시 30분으로 변경되었다.
- *...성가부는 1978년에 봉사할 성가대원을 모집하고 있다. 우리교회 등록 세계교인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 *...성경학원이 주관하는 두번째 신혼부부교육이 지난

11월 14일(월) 저녁에 있었다. 강사는 박성수 박사로 주제는 「결혼생활을 위한 심리학적 상식」. 또 지난 12일(토)에는 양서선택 및 감상(강사 박종구 선생), 효과적인독서법(강사 박성수 박사)이라는 제목으로 독서특강을 도서관 주최로 열었다.

*...김의철 장로는 지난 11월 2일 대한예수교장로회신학교(교장 라보도 박사)에서 강의를 하였다. 제목은 「한국통일과 세계선교」

*...새신자부(장년)는 11월 17일(토) 저녁 새신자부에서 후반기 교육평가회 및 기도회를 가졌다.

*...유치부는 오늘(20일) 저녁 본당에서 추수감사절 축하예배를 드린다. 어머니들의 찬양과 함께 연극 「진짜 친구」도 한다.

*...유년부는 오늘(20일) 오후 유년부실에서 3학년 학부모초청과담회를 가진다.

*...중등부는 지난 5일(토) 저녁 「음악회」를 본당에서 열었다. 또 19일(토)에는 학생들이 모은 쌀과 과일 등을 가지고 시내 임파누엘 영아원을 방문하였다.

*...고등부 면리는 11월 13일(주) 총회를 열었으며 회지 「코이노니아 19호」도 발행하였다.

*...산업전도교육부는 오늘(20일) 오후 유치부실에서 추수감사절 특별예배를 드린다.

*...청년부는 오늘(20일) 오후 청년부실에서 특강을 연다. 강사는 김희보 목사, 「성도의 결혼관」.

*...지난 10월 8일 수도노회 주교 연합회에서 실시한 유·초등부 글짓기 및 그림그리기 대회에서 우리교회 주일학교 학생 다수가 입상을 하였다. 그림그리기-최우수/유치부 최원준, 유년부 김혜원, 초등부 한덕성 글짓기-최우수/초등부 이경은

*...해의복음선교회는 홍콩의 홍콩만 선교사 협력으로 신앙간증문을 주도한 전도용 월보 견신전증(堅信見證)을 지난 11월 6일 5,000부 발행하였다.

*...서독에 유학중인 권금신 선생은 음악공부하는 틈틈이 현지 교회의 성가대 지도·반주·특별찬송 등을 맡아 수고하고 있다.

*...미국에 유학중인 김애리 선생은 줄리아대학원에서 계속 음악공부를 하는데 얼마 전에 장학금을 받았다.

□ 바다 건너온 당회장의 편지 □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온 교회가 주 안에서 평안하며 날로 부흥발전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원전축 일이 형통하기를 원하며 새성전건축 준비하는 일 또한 잘 진행되기를 기도합니다. 또 부흥회에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성례식·장로안수식·장로투표와 제직·교사·성가대원 임명과 각부에 일하실 일꾼들을 배정하는 중차대한 일에 하나님께서 다 형통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기도합니다.

저는 여러 성도들의 정성어린 기도의 응원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여섯곳(LA에서 두번, 몬테레이, 레드몬트, 칼가리, 토론토)에서 집회를 인도하면서 크게 은혜를 받았읍니다. 또 북한선교회의 일도 잘 진행됩니다. 어제는 다시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왔읍니다. 3일간 시카고에서 선교회문제에 대하여 의논을 하고 10월 27일부터 30일까지는 필라델피아 지방에서 연합부흥회를 인도하고 뉴욕을 거쳐 독일·노르웨이 등 구라파 몇나라를 다녀 보기 위한 여행 길에 오를 계획입니다. 구라파를 거친 후에 이연호 목사가 있는 이집트(에굽)를 돌아보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 오는 12월 20일 경에 미국을 출발하여 그리운 교국으로 돌아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의 여행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형통한 길을 열어주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될 것을 믿으면서 일을 계속하려 합니다. 부족한 저를 위하여 성도 여러분께서는 제가 목격하는 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모두 이루어지기를 더욱 더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1977년 10월 25일, 미국에서

작은 종 김 창 인 목사 올림

□ 주일 집회 및 헌금 통계 □

*1977.11.6 현재(매월 첫 주 기준)

<집 회>					<헌 금>				
구	분	남	여	계	주	일	I II III IV		
예	주 일 낮	I	175	372	547	예	일	I II III IV	102,975
		II	383	934	1,317				248,445
		III	265	518	783				191,705
		IV	88	178	266				81,940
배	주 일 저	남	197	385	582	배	일	조정사 일조 축산	3,316,665
		여	123	274	397				474,500
		사							309,110
		삼							76,500
주	새 신 자	I	8	16	24	주	일	새영유 초중고 대청장 노산업	자부부 부부부

□ 신급별 교인통계 □

남/여

총세대수	교인총수	세례교인	유세	학습	원일
2,735	2,437/3,748	1,381/2,519	305/244	249/354	502/631

해외선교 소식

(홍)(콩)—홍 중 만 선교사

홍콩에 주재하고 있는 홍중만 선교사는 현재 시무중인 홍콩한인교회를 중심으로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는 한편 여러 선교단체를 방문하여 선교협력을 연구·의논하는 일을 쉬지 않고 해온다.

홍중만은 교인중 사정상 집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이가 있으면 주보와 기타 유인물을 꼭 보내줌으로써 한 가정이라도 떨어지지 않도록 힘쓰며, 그러는 중 교회는 계속 커지고 있다. 얼마 전에는 지하철 공사 등 취업차 홍콩에 온 24명을 교회에 초대하여 따듯이 환영함으로 그들과 유대관계를 갖고 전도의 기회를 계속 찾고 있다.

홍중만은 지난 9월에는 교역자휴가 기간을 이용, 태국으로 떠나 방콕 그리스도교회 임시총회에 참석 방청하였으며 방콕에 있는 한인교회 및 교민회를 방문하여 그들의 실태를 살피고 돌아보고 태국선교상황에 대한 자신의 소감을 타자로 처서 본 해외복음선교회에 전해 오기도 하였다. 그는 특히 홍콩에 소재한 선교기관을 찾아보는 중 지난번에는 중국세계복음선교회에서 사업상황을 들어보기도 했다. 한편 태국국교 및 방글라데시국교를 위한 자료를 보내오기도 하였다.

(일)(본)—유 병 세 평신도선교사

일본 북해도에 주재한 유병세 평신도선교사의 선교사역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그의 부인되는 이윤호 권사의 협력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사인 유병세 집사는 그간에도 해운 병원전도에 좀 더 힘을 기울여 입원환자와 외래환자에게 열심히 전도하고 있으며 집회인도와 설교를 통하여 새신자 육성에도 마음을 쏟고 적지 않은 시간을 바치고 있다.

한편 이권사는 주일학교에서 봉사하는 한편 부근 되는 유병세 평신도선교사와 함께 혹은 다른 동지들과 협력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혼자서 축조전도를 비롯하여 노방(가두)·백화점·노인정·공원·대합실 등에 전도지를 배포하면 현지 일본인들에게 일어로 전도하거나 소개받고 일본인 가정을 방문하여 전도하고 있다. 얼마 전에는 메구로중학교 3학년 전체 학생들에게 한국을 소개하고 전도할 기회도 있었다는 기쁜 소식도 전해왔는데, 그 학교 교장이 결신하는 일이 생기는 등 11명의 새신자를 얻는 놀라운 성과도 있었다는 것이다.

※ 아르헨티나 주재 신동수 평신도국교사는 현재 사업관계로 귀국하여 있고 이달 안으로 현지로 출국할 예정이다.

청년 신앙 간증

또 한번의 「아멘」

고 제 원

<고등부 교사>

얼마 전 고등부 성가대원과 함께 친교회를 겸해서 등산을 갔었다. 여러번 등산을 다녔어도 이렇게 단체 등산은 처음이고 무엇보다도 전체체임을 맡았다는 것이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다. 책임자가 얼마나 어려운 위치인가를 다시한번 느끼게 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기대와 호기심에 부풀어 출발하였다.

무사히 산 중턱까지 올라 식사를 한 후 간단한 게임을 하고 정상을 향하였다. 정상까지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그러나 하산하는 길은 매우 험하고 가파랐기 때문에 조심하여 내려오고 있었다. 그러던중 갑자기 일이 벌어졌다. 맨 끝에서 오던 학생 하나가 다리에 부상을 입었다. 내가 업고 내려오는 수 밖에 없었다. 뒤에 처져서 겨우 부상한 학생을 업고 산을 내려오니 이게 웬일인가? 세명의 학생이 기진하여 쓰러졌다는 것이다. 눈앞이 캄캄하고 아찔하였다. 그러나 그 순간 나의 머리 속에는 「이정도가 다행이 아닌가 더 큰 일을 당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생각이 들어 「주여, 감사하다」라고 나는 중얼거렸다.

택시에 다친 학생과 쓰러진 학생 그리고 교사 한분을 태워 먼저 교회로 보내고 나머지 학생들을 한곳으로 모아 다시 확인한 후에 각자 해산을 시켰다. 그리고 나는 침울한 기분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재촉하여 교회로 왔다. 교회에 들어서자 나는 먼저 주님께 오늘 하루의 모든 잘못이 나의 잘못이었음을 회개하고 학생들이 안정을 취하고 있는 방으로 갔다. 놀라운 것은 기진하여 쓰러졌던 학생들이 기운을 회복하고 일어나 있었다. 그 순간 「주여, 「아멘」 감사합니다」라고 감사의 기도가 저절로 튀어나왔다. 다리를 다친 학생에 대하여 물어 보았더니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고 집으로 돌아가기는 했지만 꽤 심한 편이라고 했다. 그 말을 들으니 또 다시 마음이 무거워졌다. 지도자인 나 한 사람의 부족으로 많은 사람이 고생을 하게 되었구나 하고 생각하니 집에 돌아와 잠자리에 들어서도 침사리 잠이 오지를 않았다. 마음 속으로 용서를 빌고 또 빌었다. 그리고 매일 그 학생의 상처가 재발되지 않고 속히 낫게 하여 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하였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다. 교회에 볼 일이 있어 나오니 상처를 입고 다리를 다친 학생과 가까운 학생이 마침 있었다. 어떻게 되었는지 걱정스러운 어조로 다리를 다쳤던 학생에 대하여 물어보았다. 그랬더니 그 학생은 뜻밖의 대답을 하는 것이었다. 「그 친구는 오늘도 우리와 어울려 뛰어놀았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너무도 감사하여 또 한번 「주여, 「아멘」 감사합니다」라고 외치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였다. 뛰어논다는 말이 다리가 낫았다는 대답보다 훨씬 나에게 감사함을 남게 하였다. 책임을 맡은 자의 위치와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한번 깨닫게 되었고 기도의 응답을 통해 맛볼 수 있는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다시한번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

몸은 떠나도 마음은 결코 충현교회 떠날 수 없어

떠나시기 앞서 하고픈 개인적인 신앙간증이라도 있으신지요?

저는 믿는 가정에서 출생하여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 왔는데 부모님과 사촌들 어른들이 도중에 약간 신앙생활을 등한히한 적이 있었읍니다. 만주에서 살 때인데 교회도 없고 신앙이 투철하지 못해 「방학생」을 하다가 그만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었읍니다. 즉 8형제 중 4형제가 죽고 해방 후에는 6개월 간격으로 백부와 부친이 돌아가시고 할머니께서 뒤이어 세상을 떠났지요. 그래서 저는 어린 가운데서도 믿는 자가 하나님을 떠날 때 무서운 징계의 책적이 내린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읍니다. 성경에 죄가 3,4대에까지 이른다는 말씀을 뼈아프게 느꼈는데 지금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두렵기만 합니다. 따라서 애들에게 이러한 결과가 미치지 않도록 하려니, 그만큼 저의 신앙생활을 늘 돌아보지 않을 수 없군요.

가문이 다 입교인들인 전통적 신앙가정으로서 가훈(家訓)같은 것이 있음직한데요...

있지요. 「진실」이 바로 저의 집 가훈입니다. 참·사랑·기도 등등이 다 「진실」 속에 담겨 있다고 봅니다. 「진실」 가운데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생활을 하면서 진실된 사람이 되라고 아이들에게 늘 강조하는데 그런대로 잘 따라주는 것 같습니다.

충현교회에 18년간 봉직하시고 또한 장로장립받으신 지도 9년이 지나셨는데 지난 일을 회고하실 때 느끼는 보람이라도 있으신지요?

지금까지 주교 1부에서는 한번도 봉사하지 못하고 주일학교 Ⅱ부에서만 봉사해 왔는데 고등부 교사로서 시작하여 집사된 지 6년만에 장로장립을 받았어요. 주일학교 교육에서 눈물·땀·정성을 들여 어린 영혼들을 인도한 것에 보람을 느꼈는데 특히 주일학교교육에서는 무엇보다도 기도의 힘으로 나가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읍니다. 기도 없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는 주교교육은 반드시 실패한다는 것이 저의 지론입니다.

떠나면서 느끼는 아쉬움 같은 것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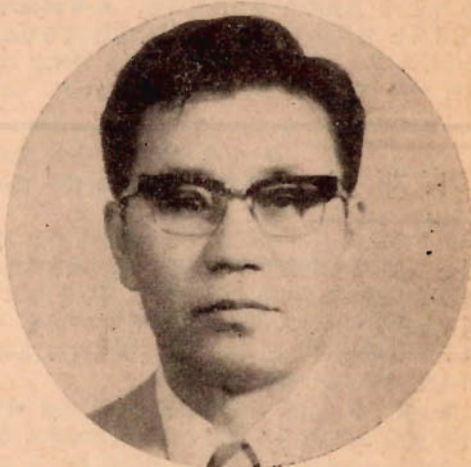
「지도자양성부」의 창설을 건의하여 초대 부장으로 일하는 중 성경학원을 설치하기에 이르렀는데 당회장 목사님은 무디(Moody)성경학교 같은 것을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경학원을 통해 신학공부를 계속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여 연구반과 보통반을 구분, 설치하였는데 모든 여건이 쉽지 않더군요. 우리 교회 같으면 재정적으로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미국에 가고자 하는 어떤 동기라도 있습니까?

글쎄요. 이렇게 가진 합니만 아주 떠나는 생각은 추후도 없고 그저 다녀온다는 심정일 뿐입니다. 어디 가든지 한국을 위해 일하고픈 마음밖에 없어요.

떠나신 후에 모교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계속 유지할

올해만 해도 수십명이 우리교회를 떠나 해외로 이주해 갔다. 이러한 해외이주자 가운데 한 가정이 될 신계택 장로(주교 고등부 부장)를 이달에는 만나보기로 하였다. 지난 1월에 이미 도미(渡美)한 사모 임금전 집사의 뒤를 이어 노모와 아들 5형제와 곧 미국으로 떠날 채비에 한참 바빴던 것을 알면서도 18년 동안이나 충성을 다해 오신 일꾼을 멀리 떠나보내는 것이 못내 아쉬워 잠시나마 대담을 나눠 보았다.



◇몸은 떠나도 마음은 결코 충현교회를 떠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신계택 장로.

계획신이지요?

몸은 떠나도 마음은 결코 충현교회를 떠날 수 없을 것입니다. 저의 마음 속에는 오직 충현교회 하나가 있을 뿐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가지고 있지만 본교회 출신 장로님들과 함께 뜻을 모으면 실마리가 풀리지 않을까 생각해요. 미국 가서도 계속 충현교회의 천국확장사업에 참여하고 싶은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역시 물질적인 참여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미국 사회에서 어떻게 자녀를 교육과 신앙 지도에 임할 작정이신지요?

먼저 가기 전에 깊은 은혜를 간직하고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미국도 나뉘어서 은혜가 충분해 있으면 살기에 괜찮은 곳도 있다고 합니다. 즉 맑은 물이 흐르는 곳이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믿음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교회를 선택하는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잘 곳은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인데 일만명 정도 교포가 살고 있다고 하며 한인교회는 어른만 300명 정도 되는 교회라고 합니다.

끝으로 우리교회에 꼭 하고 싶은 말씀을 들려 주십시오.

교회가 크다 보면 조직과 법과 규정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새로운 일들도 시작하며 한편으로는 하나 하나 착실히 마무리져 나가야 발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종사하실 무선 엔지니어링 계통 사업에 꼭 성공하시어 하나님께 크게 영광돌리며 우리교회를 위하여도 많이 일을 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리: 오택용 집사>

국내의 독자 여러분께

지난 1972년부터 발행되어 온 월간 충현은 그동안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여러분의 끊임없는 격려 가운데 크게 자랄 수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개교회에서 발행되는 미약한 것이지만 문서를 통한 복음전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그간 국내의 여러 교회와 기관에 배포하여 왔습니다. 그러

나 항상 궁금한 것은 여러분이 매달 빠짐없이 잘 받아 보고 있는지의 여부였습니다. 그래서 연말을 기해 1978년 독자주소록도 새로히 만들겸 이를 확인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오는 12월 17일까지 관계 업서에 꼭 회신을 바랍니다. <보낼 곳/100-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5가 36 충현교회내 월간충현 편집실>

기 자 석

*...일의 끝맺음은 항상 중요하다. 일의 결과를 보다 돋보이게 하며 그 결과가 보다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게 하는 데는 끝맺음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좌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또 다시 한해를 매듭지어야만 하는 시점에 서게 되었다. 1977년의 지나간 열한달이 혹 만족스러운 것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끝맺음을 소홀히해서는 안될 것이다. 맡은 책임이 크든지 작든지 똑같은 마음가짐이 필요하겠지만 특히 상당한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깊이 명심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된다. 백에 하나라도 새해에는 내가 이 자리를 떠나야 할 것 같은데 어려운 문제들을 다음 사람이 어떻게 해주겠지 하는 작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그나마 적은 결실을 아주 포기해 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이다.

*...해마다 신년도 사업계획을 세우는 일에 매일 수 없는 꼬리표처럼 따라 붙는 말이 있다. 「예산 증액」 이에 대한 모든 원인은 물가상승과 인플레이라고 설명을 한다. 상당히 현실적이고 타당한 이야기다. 그러나 세상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가능케 하려는 입장에 있으면서 철저하게 현실적인 면만, 그것도 아전인수 격으로만 따르려 한다면 그야말로 가능한 것도 불가능으로 바뀌게 되고 말 것이다. 먹고, 입고, 쓰는 일에 남들이 하는 대로 다 따라하고 언제 큰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절제와 지혜와 인내로 이같은 예산 증액의 현실적 요인을 장그려 상쇄시키고자 하는 용기, 이것이 우리에게서 적절한 것이다. <오>

*...찬바람이 피부를 자극시킨다. 찬바람이 불면, 우리네들의 마음은 분주해진다. 연초의 계획이 계획으로만 그치는가, 아니면 익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익히지 못한 채 수확을 해야 할 것인가의 생각들로 항상 분주한 것이다. 한해를 보내는 아쉬움에서보다 게으름으로 인하여 해야 할 일을 못 다한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더욱 초조해진다. 마음의 분주보다 행동의 분주로 못 다한 일들을 앞차게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독서를 계절에 따라 해야 하는가? 가을을 독서에 계절이라 하여 독서주간 설정과 갖가지 행사를 가을에 하곤 한다. 가을이 정말 독서하기 좋은 계절이라서 그런지 아니면 너무 우리네들이 책을 읽지 않아서 책을 읽도록 하기 위해서 독서의 계절이란 말을 하는 것인지 좀 이해가 안 가는 말 같다. 독서는 마음의 양식이므로 계절에 구애 없이 늘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는가? 독서의 생활화가 필요한 듯하다. 독서의 생활화를 위해 이색적인 제안을 해보고 싶다. 우리네들의 생활 중에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시간이 매우 많다. 그 시간을 독서의 시간으로 이용했으면 하는 것이다. 복잡하고 흔들리는 차안에서 어떻게 독서를 하느냐 라고 반문할 것이 당연하다. 그것을 위해 다음과 같은 캠페인을 벌여야 하겠다.

“책 읽는 사람에게 자리 양보...”

<제>

표지설명

결실을 거두는 추수 때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찬송을 드린다. 그러나 자연만물에 추수의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미구에 추수 때가 있음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자연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이다.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쭈그러드는 썬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마3:12」

월 간 충 현

11월호 통권 제47호

발행인/김 찬 인
편집인/송 순 일
주간/정 관 일
편집국장/조 선 근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1972년 4월 30일 창간
1977년 11월 20일 발행

100-서울 중구 충무로 5가36
27-9937-9738
29-7726(편집실)

❁ 사진으로 보는 이모저모 ❁



◇인도네시아 주재 서만수 선교사(왼쪽)는 지난 8월 하순 선교와 민간외교활동 공헌으로 박정희 대통령의 표창을 이재설 대사로로부터 전달받았는데 사진이 뒤늦게 도착했다.



◇해외복음선교회 헌신예배가 박윤선 목사를 감사로 모시고 10월 31일에 있었다. 주석가로 유명한, 신학박사 박목사는 「선교의 책임한계」(마28:18-20)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대학부는 지난 10월 28일 세운 초청강사를 모시고 3일간 특강이 있었는데, 첫째날 황성수 박사가 「인간의 제유형」의 제목으로 열띤 강의를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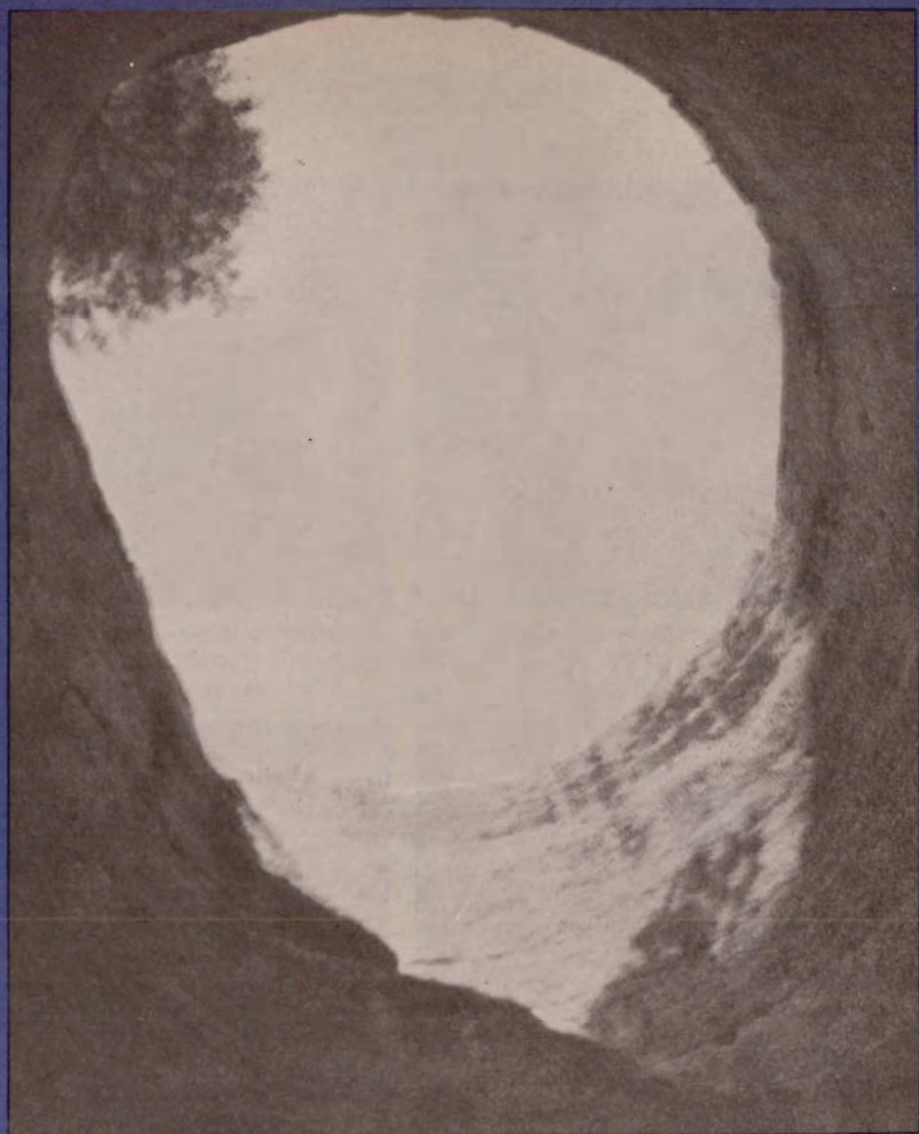
◇여전도회에서는 충북 단양군매포면평동리에 설립한 매현교회의 첫 임당예배를 지난 10월 27일에 드렸다. 이 자리에는 임원들과 전도위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하였다.



◇중등부의 한 자랑인 작은음악회(이한승 선생 지휘)가 지난 11월 5일(토) 대예배실에서 헨델의 「주님을 의지하라」등을 발표하여 성도들에게 많은 은혜가 되었다.



◇고등부는 반별 진목을 겸한 반별성가대회를 가졌는데 여기서는 2학년 A반(신재원 선생 담임)팀이 영광의 우승을 차지했다. 어느 반의 출연중인 한 모습.



큰 감사

병고집을 받은 병자는 행복하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할지이다. 그러나 고집을 받지 못한 병중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의 신앙은 더욱 크도다.

좋은 반려자를 만난 남녀는 행복하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할지이다. 그러나 배우자를 얻지 못하고도 주님을 섬기는 사람의 신앙은 더욱 크도다.

자녀의 덕을 누리는 부모님은 행복하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할지이다. 그러나 자녀가 없어도 하나님을 원망 없이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의 신앙은 더욱 크도다.

좋은 직장을 가지고 그 보수로써 만족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할지이다. 그러나 직업을 잃으면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조용하게 바라보는(기다리는) 사람의 신앙은 더욱 크도다.

지방한 학교에 입학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할지이다. 그러나 설사 지방한 학교에 못 들어가도 주님을 우러러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더욱 복되도다.

우리들은 좋은 선물을 받았을 때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여 스스로 감사하다. 그러나 기도하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빼앗길 때 우리들은 슬퍼하며 나도 모르게 불평하고 만다. 그러나 슬픈 중에서도 주님의 손길을 우러러보는 것이 신앙이다. 우리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소원한다. 때로는 간절히 간구한다. 그런데 이것이 야말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로 믿고 간구하는 데도 종래 응답이 없는 때가 있다. 그 때에도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뜻이 따로 있음이 틀림없다고 믿고 자기의 소원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 신앙의 순종이로다.

간절히 기도하여 병이 고침을 받을 때도 있다. 그러나 고침을 받지 못할 때도 있다. 결혼도 자녀도 직업도 전학문제도 마친가지로. 그런 것들을 받게 되는 것은 정말 감사하다. 그러나 만일 받지 못한다고 해도 감사하리로다. 왜냐하면 땅의 것은 잠시 후에 지나가버리고 말기 때문이로다. 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은 감사, 감사, 큰 감사가 있을 뿐이로다.

일로암
못가에서